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인쇄/1997년 12월 27일

발행/1997년 12월 30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정세현

편집인/북한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5 팩시밀리 901-2542

© 민족통일연구원, 1997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17-6

4,500원

연구보고서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 성 철

민족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이 대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간부층의 응집성과 침투기능 유지이다. 본 연구는 체계 작동의 실질적 행위주체인 당간부의 역할과 위상을 일상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북한 당국의 간부정책을 분석하였다. 특히 당간부(군대의 경우, 당사업을 전담하는 정치군관)들 사이에서 또는 이들과 타 조직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위구조와 이들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규범이 제도화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조망하였다.

1. 체제형성과 간부정책의 정립: 1945~1953

해방 후 북한은 심각한 간부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양학원(1946.2), 보안간부훈련소(1946.6), 중앙당학교(1946.6),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1946.7) 등을 설립하였고 간부후보로서의 당원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한데다가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까닭에, 1946년 8월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대중적 정당' 건설이라는 이름아래 당세확장과 간부후보군의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간부인사에서는 계급적 원칙(노동계급의 우선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간부의 낮은 자질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은 전쟁과 관련한 일반상식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 즉, 전쟁이 어떤 단결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견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당내갈등을 표면화시켜 숙청의 선풍을 일으켰으며, 김일성으로 하여금 군사지휘권 대신에 오히려 당권과 군대내 당조직을 중심으로 집권을 공고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특히 간부정책과 관련,

김일성은 한편으로 박헌영의 남노당과 허기이의 소련파를 수세에 몰면서 자신의 당내 권력을 확대해 갔으며, 다른 한편 인민군내 당조직과 정치위원제를 정립시킴으로써 당중심의 권위구조를 안착시켜 나갔다. 주목할 것은 인민군내 당 조직이 정착된 만큼 정치군관들의 역할은 일반 지휘관의 것보다 중요시되었다는 점이다. ‘군사유일관리제’라는 구호아래 원칙적으로 정치군관의 역할을 군사지휘관의 명령하달과 이것의 집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런 원칙이 위반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군관들의 독특한 역할 때문이었다. 이들은 군사지휘관이 당의 전략전술과 최고사령부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군사지휘관의 표정인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배양하는 사상교양사업을 맡고 있었다. 또한 군내내 정치군관은 군사지휘관에 대한 인사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이들을 장악·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체제발전과 간부정책의 강화: 1954~1973

김일성은 당권을 주도하게 되자(완전한 장악은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임) 행정·경제기관 내에 당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집체적 결정기구의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위 ‘당적 지도’를 통한 침투력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군내 내에서 정치군관을 중심으로 한 당위원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군내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시켜 나갔다.

그러나 간부정책이 생산현장과 같은 기층조직에서 공고화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다. 대안의 사업체제와 청산리방법을 통해 생산현장의 당위원회 역할이 강화되었고 당간부의 권한과 책임이 제고되었다. 생산현장에서의 당위원회와 당간부의 권한 강화는 당의 침투

력이란 측면에서 기여했는지 몰라도 경제체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당위원회가 생산 영역은 물론 정치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는 집체적 결정기구 역할을 행함에 따라, 당간부들은 경제와 정치 모두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 마디로 형식상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 사이의 권위관계가 통제(또는 갈등) 차원에서 융합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간부들의 가치규범으로 유난히 강조된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합리성과 창의성을 저해하였다.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는 서로 보완적인 개념들이었는 바, 전자는 사상적 개조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후자는 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층의 존재를 불인정하지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강조에 따른 가장 큰 변화로는 간부들에 대한 당조직생활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중앙당은 물론이고 지방당 간부들이 세포회의에 참여하는 회수가 늘어났으며, 이들도 예외없이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간부의 당조직생활이 강화됨에 따라 중앙당의 조직지도부와 도당 조직부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런 경향은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더욱 심해졌으며, 그만큼 체제의 경직성은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3. 김정일 등장과 간부정책의 전환: 1974~1997

1970년대 초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과 동시에 간부정책에 전환이 일어났다. 당사업 만을 관장하는 전문 당간부에 의한 당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전문 당간부들에 의해 당조직생활 지도가 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와 각종

집체적 학습 및 강연에 참여함으로써 당조직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3대혁명소조,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의해 다중적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더욱이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의해, 간부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삼아야 했다. 이같은 김정일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기와 1980년대 전반기의 약 10년 동안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당중심의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체제 전반적인 모순이 누적되고 경제적인 침체가 심화되면서 간부들은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관료제적 병리현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같은 일탈행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 대변혁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 도달함에 따라 당·군간의 권위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당·군간의 권위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91년 12월 김정일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취임일 것이다.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군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직접 명령과 지시를 행사하는 권위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것은 김정일로서는 당과 군을 분리지배하려는 의도였지만, 군부의 당으로부터의 독자성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권위관계의 변화와 함께 간부의 가치규범도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같은 엄격성을 띤 것으로부터 ‘총폭탄’, ‘6연대정신’, ‘혁명가’(또는 ‘배신자’) 등과 같은 통속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변천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간부정책 또한 변화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간의 독특한 권력승계 방식 때문에, 간부정책의 효율적 변용(예를 들어,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의 역할 분담)에 의한 적응보다는 군부와 정치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한 변태적 적응을 시도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부가 당으로부터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권위관계 하에서 체제변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역할을 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4. 간부정책의 특성

북한의 간부정책은 대체로 일관된 충원방식과 조직체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면서도 1970년대 초 김정일 등장을 전후하여 변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권위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먼저 전문 당간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김정일 등장 이후 행정·경제기관과 공장 및 기업소 등 생산현장의 당조직은 기본적인 행정 또는 생산업무에 대한 지도보다도 통제의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같은 당의 역할 변화와 함께 간부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모든 행정·경제기관과 생산현장에서는 세포 이상의 당조직에 전문 당간부제가 공고화되었다. 초급당까지 1명의 비서와 2명의 부비서(조직비서, 선전비서)들이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행정 또는 생산에 대한 지도보다도 조직 강화와 통제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정열을 할애해야만 했다.

전문 당간부제의 공고화가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과 통제력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간부는 특히 생산단위(공장, 협동농장, 기업소)에서 당의 경제정책 집행정형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산과정과 공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적 지도'와 행정간에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당간부는 무의식적으로 월권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을 한층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한 셈이 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간부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게 되고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 변혁이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군대(특히 정치군관)의 위상을 높이고 활동영역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1991년 12월 김정일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취임이었다. 이를 계기로 김정일은 당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군대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변화 과정 속에서 김정일 시기의 간부정책은 김일성의 그것과 차별성을 떨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은 정치군관들의 전횡을 견제하면서도 그들을 군대내에서 광범위하게 동용하였다. 그는 정치군관들을 보위사업 또는 간부사업 관련 분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민무력부 간부국의 부장, 군단 간부부장, 사단 간부부장 등의 직책에 정치군관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가치규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간부의 충성대상이 수령인 김일성으로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명명하고 초헌법적 내용을 담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공포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함은 물론 최고의 충성대상으로 묘사하였다.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간부의 정표라고 불리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모두 김일성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요약되었다.

한편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은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고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충성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심 권력엘리트의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김일성 사망 후 노동당 국제비서 황장엽의 망명, 농업비서 서관희와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이봉원의 숙청 및 처형(설)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들을 따르던 중간 간부들의 운명도 이들과 같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정책이란 간부들의 목적의식적

행위의 집합과 그들이 간직해야할 지고의 가치규범과 관련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때, 간부의 충성대상의 변화는 간부교체를 수반하는 등 간부정책의 전반적 변화와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 목 차 -

I. 서론	1
II. 체제형성과 간부정책의 정립: 1945~1953	6
1. 해방 후 간부인력의 증대	6
가. 새 간부의 양성	7
나. 간부후보군의 확대	11
2. 전쟁중 당중심의 권위구조 정착	17
가. 간부배려 조치	18
나. 군대 및 내각의 당조직	21
III. 체제발전과 간부정책의 강화: 1954~1973	25
1. 전후 당위원회 중심의 권위구조 강화	25
가. 간부인사의 실무적 전환	25
나. 당위원회의 제도화	27
다. 간부숙청과 계급교양	31
2. 경제발전기 계급적 가치규범 지향	35
가. 생산현장의 당위원회 강화	36
나. 간부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38
IV. 김정일 등장과 간부정책의 전환: 1974~1997	42
1. 후계준비기 간부통제 강화 및 가치규범 변화	42
가. 당조직생활 강화	42
나. '수령에의 충실성'	50
2. 체제위기와 간부의 위상 변화	54
가. 간부에 대한 이중적 인식	55
나. 당·군 권위관계의 변화	58

V. 간부정책의 특성: 지속 및 변화	63
1. 권위구조 측면	63
가. 전문 당간부의 역할 강화	63
나. 간부에 대한 다중적 통제: 3대혁명소조의 예	65
다. 정치군관의 위상 및 활동영역 증대	68
2. 가치규범 측면	70
가. 선발기준의 유지	70
나. 간부의 충성대상 변화	72
VI. 결 론	75

I. 서론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체제의 공통된 속성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하나는 간부조직의 비대와 관료주의적 현상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는 그 형성기부터 모든 사회적 가치와 조직을 공유화하고 이를 유일당이 지도하고 관리해왔다. 비록 그들 체제가 공식적으로 '관료제'란 표현을 꺼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치의 공유화와 유일당에 의한 지배는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관료제적 병리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주의체제야말로 베버(Max Weber)에 의해 이론화된 관료제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한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불평등의 역기능이 심각했던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체제 관료제에 관한 국내외의 많은 연구들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관료제 연구가 지나치게 형상화된 모델(formal model)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동서 냉전기 서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 연구는 전체주의 접근법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을 추구하였고, 그 대안 중의 하나가 1960년대 후반 마이어(Alfred G. Meyer)를 중심으로 소련 사회주의체제를 유일적 거대관료제로 파악한 관료제 모델이었다.²⁾ 그러나 관료제 모델은 사회주의체제의 성격들 중 한 축

1) Eugene Kamenka, *Bureaucracy* (Oxford: Basil Blackwell, 1989), pp. 154~5; David Beetham, *Bureaucrac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7), pp. 62~3.

2) Alfred G. Meyer,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pp. 46~54.

2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면, 특히 통제와 침투 메카니즘을 기술하는 데에는 적실성을 지닐지 모르지만 체제 전반의 동태적 측면과 연관시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 모델은 정치, 경제, 이념, 지식·문화간의 복합적 상호작용과 이에 따른 변화과정을 분석하는데 불충분하였다. 더욱이 관료제 모델은 모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관료제 모델이 진정 하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체제의 작동에 본질적인 것이어야 되는데,³⁾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해주지 못했다. 아무튼 전체주의 모델의 대안으로 등장한 관료제 모델은 지나친 형상화로 인해 성공하지 못한 모델로 남게 되었다.

둘째는 관료제 연구 자체에 내재한 문제로서 외형분석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다. 즉, 관료제 연구가 대체로 공식적 조직체계, 당 중앙위원급 엘리트 층원의 형식과 절차, 관료주의적 병폐 등에 관한 분석에 치우쳐 왔다.⁴⁾ 또 많은 연구들이 최고위 엘리트층의 노선과 정책의 산물에만 관심을 가진 반면 정작 행위주체인 중간 간부(cadre)들 사이의 권위관계 문제를 타 부문과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는데 소홀히 하였다.⁵⁾ 즉, 기존의 관료제 연구들은 제도의 구축과 변화를 사회주의체제의 역동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하였

3) 모델의 요건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William Odom, "Soviet Politics and After: Old and New Concepts," *World Politics*, Vol. 45, No. 1 (October 1992), pp. 68~9; William Odom, "A Dissenting View on the Group Approach to Sovie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8, No. 4 (July 1976), pp. 545~7.

4) 예를 들어 김공열, 「북한관료제론」(서울: 대영문화사, 1993)와 박완신, 「신북한행정론」(서울: 지구문화사, 1995) 등은 엘리트층 중심으로 한 행태 및 행정기구에 대한 탁월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간부들간 권위관계의 지속 또는 변화 부문을 통시적 측면에서 다루지는 않았다.

5) Hong 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 5.

는 바, 예를 들면 지방 당간부와 행정간부 사이의 관계가 경제체계의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설명하지 않았다.⁶⁾

이같은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북한 사회주의체제 작동의 실질적 행위주체인 당간부의 역할과 위상을 일상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간부정책에 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당간부(군대의 경우, 당사업을 전담하는 정치군관)들 사이에서 또는 이들과 타 조직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위구조(authority structure)와 이들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와 규범(values and norms) 등이 제도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권위구조와 가치규범이다. 행위주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권위의 행사 및 수용 방식이 반복되어 일상화될 때 구조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우리는 이를 권위구조라고 부른다. 북한의 당간부들은 김일성 및 김정일로 대표되는 최고위층의 노선을 침투시키고 사회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권위구조의 틀 안에서 행동하게 되며 이로부터 이탈하였을 때는 엄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권위구조는 단순히 일상화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당간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징적 가치와 규범에 의해 추상화된다. 최고위층의 입장에서는 체제의 변화와 함께 일상화된 권위구조나 추상화된 가치규범의 일부를 변용시켜 나가면서 침투와 통제의 수준을 제고시키거나 최소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시키려 한다. 이같은 정책적 전환은 1970년대 초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을 전후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6) 사회주의체제의 간부제도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교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趙在權 저, 申福龍 역, 『共產主義 幹部制度 研究: 中國과 北韓의 분석적 비판』(서울: 평민사, 1985)이 있다. 이 저서는 중국과 북한의 체제 형성기, 특히 토지개혁기 간부들의 정치동원의 역할에 관한 탁월한 분석을 보여준 반면, 간부층과 사회간 권위관계의 시기적 변화에 대한 분석이 없어 아쉬웠다.

4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본 연구에서 관료제란 용어 대신에 ‘간부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고위층이 당간부의 권위구조와 가치규범을 구축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이 비사회주의체제와 구별되는 특수한 측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줄곧 관료제가 자본주의의 잔재로서 지배계급의 피지배 계급에 대한 약탈도구였다는 점을 들어 관료란 용어의 사용을 거부하여 왔다. 대신 북한은 당조직들을 통해 관료제적 병리현상을 차단하면서 당에 의한 내각 통제, 군대내 정치조직을 통한 군부 통제, 당조직에 의한 대중단체의 동원 및 감독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여기에 소속된 당원과 간부들은 일반대중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양성된 사람들로서, 북한 특유의 계급정책아래서 각종 특혜를 누리는 소수 집단이었다. 결국 북한에서 당원 및 간부를 관리하는 정책은 비사회주의권의 관료제와는 성격을 달리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관료제란 용어 대신에 간부정책이란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간부는 중앙당의 과장급으로부터 시작하여 세포비서에 이르는 중하위 당간부 및 인민군 정치군관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의 경우 중앙당의 과장, 부과장, 책임지도원, 지도원과 지방의 도당 비서, 구역당 및 군당 책임비서, 리당비서, 세포비서를 말하며, 인민군의 경우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정치위원과 중대 정치지도원급을 지칭한다. (그 이상의 직책을 가진 간부는 핵심간부라고 부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직급과 관련한 인사사항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권위구조와 가치규범을 고찰하는 것이므로, 논지 전개에 있어서 구체적인 직급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들 당간부(또는 정치군관) 전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간부정책에 관한 연

구는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대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현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에 대한 집요한 사상교양, 치밀한 사회통제와 함께 간부층의 응집성 및 침투기능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간부층이 응집성에 의해 체제유지에 기여하면서도 병리현상과 일탈행위의 증가로 인해 체제유지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이같은 간부층의 이중적 측면은 정치우선주의에 의해 경직된 간부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7) 간부층의 응집성과 관료제의 기능은 본 연구원의 1996년 연구보고서인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현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에서 경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치밀한 간부 양성 사업과 재교육에도 불구하고 간부층 사이에서 관료제적 병리현상이 증가추세에 있음도 드러났다.

II. 체제형성과 간부정책의 정립: 1945~1953

1. 해방 후 간부인력의 증대

스탈린은 일찍이 사회주의체제의 건설과 유지에 있어서 간부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⁸⁾라는 구호아래 간부의 양성, 선발, 재교육 등에 심혈을 기울였다. 북한의 김일성도 해방을 맞아 소련군의 후원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기반을 닦아나가는 과정에서 스탈린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간부정책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간부가 중요한 이유는 김일성을 둘러싼 최고위 엘리트(후견인 역할을 한 소련군 포함)의 노선과 정책이 기층 인민들에게까지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행위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노동계급 출신으로서 당, 군대, 정권 구축 등 체제건설과 과거유산 타파를 위한 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일성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 권력을 지향하고 있었던 인사들은 모두 간부를 확보하는 사업에 진력해야 한다는 점에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초기 북한에서의 간부정책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새 간부 양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당원확대를 통한 간부후보군의 확보였다.

8) V. Stalin, "Rech'na vypuske akademikov Krsnoi Armmii," (4 May 1935), in his *Sochineniia*, ed. Robert H. McNeal, 3 vols. (Stanford, 1967), 1:61. Sheila Fitzpatrick,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148에서 재인용.

가. 새 간부의 양성

새 간부 양성사업은 평양학원(1946.2.8), 보안간부훈련소(1946.6.3.?), 중앙당학교(1946.6.3),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1946.7.1) 등 전문양성기관이 세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선 평양학원은 1945년 11월부터 그 설립이 준비되어 이듬해 초부터 학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46년 2월에 개원식을 가진 만큼 다른 어떤 간부양성기관보다 앞서 세워진 기관이었다.⁹⁾ 학원의 창설멤버 및 교관요원은 김책과 소련군 출신 한인 30여 명이었다. 학생은 노동자, 농민 출신 중에서 새로 선발된 사람보다는 이미 해외 또는 국내에서 투쟁 경력을 가진 자들로서 새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재교육 대상자들이었다. 당시 북한 지역내 체제 건설을 준비하는 고위 인사들에게는 전문적 직업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였으며, 특히 군사와 정치 사이에 커다란 구분이 없었다. 따라서 평양학원은 군사정치 간부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았다.

평양학원은 이같은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정치사상, 대중동원, 군사기술 등 다양한 과목을 부여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① 일제 및 봉건적 사상잔재를 제거하고 혁명의식을 주입하는 정치사상교양, ② 주민들에게 당정책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조직·동원하는 군중공작방법, ③ 한국 지형조건에 맞는 산악지대 전법 등의 군사기술 등을 이수하였다. 중요한 것은 정치교육과 군사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실시되었다는 점인 바, 김일성이 “정치를 떠난 군사나 군사를 떠난 정치는 다 같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학원의 교육이 반(100명 정도), 조(30명 정도), 분대(10명 정도) 등의

9) 김일성, “평양학원을 창립할데 대하여 (평양학원 터전을 정하면서 학원 및 지방당 일군들과 한 담화, 1945.11.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p. 416.

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대로 나뉘어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보아, 전체 인원은 초창기에 대략 대대단위의 규모였던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치간부로서의 소양을 쌓은 초기 평양학원 졸업생들은 다양한 분야로 배치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보안간부훈련소들의 창설요원이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군대의 창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3~4개월의 속성과정을 거친 평양학원 1기 졸업생(1946.4.29 졸업) 중 10명은 김일성 휘하의 손종준 등 빨지산 출신 인사 30여명과 함께 인민군 군관양성을 위한 보안간부훈련소의 창설요원으로 참여하였다.¹⁰⁾ 다시 말해, 평양학원은 인민군대 간부양성의 모체기지가 된 셈이다.¹¹⁾

보안간부훈련소(후에 보안간부학교, 다시 중앙보안간부학교로 개칭)는 1946년 6월 초 평남 개천에 세워진 보안훈련소(신의주, 정주, 강계에 제1, 2, 3분소를 가짐)의 후신이다. 북한 주둔군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의 국내 무장력해제 포고령(1945.10.12)에 의거하여 국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운용되던 자위대와 적위대가 해산되고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에 보안대란 이름으로 새로운 무장조직이 설치되었다. 보안훈련소는 바로 이 보안대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치스차코프의 포고령이 김일성의 무장력을 보호하고 여타의 무장세력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던 만큼 보안대는 소련군의 감독하에 김일성 일파가 주도하는 북한 지역내 유일의 실질적 군사집단이 되었다.)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을 기념하여 보안대가 보안간부훈련대대부로 발전함과 동시에 보안훈련소도 보안간부훈련소로 개

10) 尹宗鉉, “金日成의 軍事思想,” 北韓研究所 編, 「北韓軍事論」(서울: 北韓研究所, 1978), p. 223.

11) 김일성,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 (평양학원 제3기 졸업식축하연회에서 한 연설, 1947.10.5),”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462.

칭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소의 교육대상은 18세부터 25세까지의 빨치산 투쟁의 희생자녀들과 노동자, 빈고농 계층이었으며, 김일성의 말대로 “장차 창건될 인민군대의 핵심부대”¹²⁾가 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훈련소는 소련 군관학교를 모방한 일과표에 따른 전술, 포병, 사격, 통신 등의 군사훈련과 함께¹³⁾ ① 봉건 및 일제사상 잔재 제거와 함께 당노선의 이해를 위한 정치사상교양, ② 대중적 지지 유도를 위한 군민관계 강화, ③ 혁명적 의리를 내세운 상하일치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삼았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교양이었음에 틀림없는 바,¹⁴⁾ 훈련소내 당조직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부’라는 기구가 정치사상교양을 담당하였다.

보안간부훈련소 출신자들은 후에 다시 중앙보안간부학교로 보내져 고등군사교육을 받았으며,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이 공식창건할 당시 이들이 최고 대대장급까지의 직책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⁵⁾

한편, 당과 정권기관 간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중앙당학교(1946.6.3)와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1946.7.1)가 해방 이듬해에 개교하였다.¹⁶⁾ 중앙당학교는 평양학원에서 정치반이 떨어져 나와 세워진 상

12) 김일성,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제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7.1.15),” 「김일성저작집 3」, p. 20.

13)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3), p. 72.

14) 김일성,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 군인들과 한 담화, 1946.10.7),”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제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7.1.15),” 「김일성저작집 3」, p. 20.

15) 김정민과의 면담, 1997.9.18; 김일성,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임무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47.4.25),” 「김일성저작집 3」, p. 230.

16) 한편 지방의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의 현직간부와 새 간부들을 위한 단기 간부양성기관으로 각 도당학교들이 1946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동년 말에는 시, 군 야간당학교가 개설되어 초급간부와 핵심당원 양성기지로 활용되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77.

10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실 당간부 양성기관으로서 대중적 정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김일성의 상황인식 속에서 발족하였다. 당시에는 그 자신이 인정하였듯이 간부, 특히 당간부의 부족상태는 매우 심각했으며 당시 중하위 간부직의 당원마저도 자질에 있어 낮은 수준이었다. 김일성은 말하기를,

“지금 우리에게서 간부들, 특히 준비된 당간부들이 매우 적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준비된 당간부가 500명만 있어도 한 개 도에 거의 100명씩 파견할 수 있으므로 당면한 간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만큼 수의 준비된 간부가 없습니다. 지금 각 도, 시, 군, 면 당 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간부들을 보면 거의 다 체계적으로 교양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¹⁷⁾

중앙당학교와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는 각각 당과 정권 및 경제기관 간부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했는지는 몰라도 질적으로 우수한 간부를 양성하는데는 별로 이바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당시의 북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이 두 기관이 간부의 양적 및 질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는 벅찬 일이었을 것이다.

우선 간부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기관은 단기교육 중심(중앙당학교의 경우, 처음에는 2개월로 시작하여 3개월 및 6개월반 개설)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이론 및 실천에서 준비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도 노동자나 농민 중에서 비교적 현실적인 의식 소유자와 여성 및 남한 출신자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¹⁸⁾

17) 김일성, “중앙당학교는 당간부를 키워내는 공산대학이다 (중앙당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6.3),” 『김일성저작집 2』, p. 244.

18) 위의 글, pp. 252~6.

이들 양성기관들의 교육내용은 군간부 양성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구체적으로 ① 마르크스·레닌 혁명이론, 그 중에서도 노동계급 중심의 전위당 역할, ② 노동자, 농민을 기본으로 하되 타 정당 및 인테리, 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를 포함한 통일전선정책의 구축, ③ 인민적 사업방법과 사업작품, 즉 대중의 조직 동원, ④ 당규율 등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교육대상의 기본적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던 까닭에 그들에게 수준높은 이론 강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 등과 같은 용어나 한자어를 제대로 수용할 지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 따라서 김일성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이같은 점은 당, 군, 정권기관의 간부양성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을 것이다.

나. 간부후보군의 확대

간부는 기본적으로 당원이어야 하며 당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해방 직후 간부양성기관을 세움과 동시에 당세를 확장하고 간부후보군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당세확장과 조직강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체제형성기 간부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이 발생할 때까지 북한에서는 대중적 당을 건설한다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있었다. 당 건설과 관련 중요한 회의였

19) 김일성, “민족간부는 새조선 건설의 기둥이다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7.1),” 『김일성저작집 2』, p. 290.

12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던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1945.12.17), 당은 규모에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²⁰⁾

첫째, 당원 수가 북한 전역에 걸쳐 4,350명에 불과한데다 입당절차는 매우 까다로운 상태였다. 누구든 입당을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입당보증인은 1년 이상의 당경력을 가져야 했다. 이것은 입당을 저해하는 절차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절차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는데, 그것은 다름아니라 입당 희망자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었다. 김일성은 입당자격을 따지는데 있어서 계급적 성분을 중요시 여겼던²¹⁾ 한편 그와 경쟁적인 인사들은 혁명이론과 투쟁경력을 자격요건으로 여기면서 입당을 까다롭게 만드는 '관문주의'에 빠져 있었다.²²⁾ 한국이 농업사회여서 노동계급이 부재하였으며 일제하 공산주의운동의 불법화로 공산당원이 소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까다로운 입당조건과 자격요건은 당세 확장에 커다란 장애였다.

둘째, 당조직이 중앙당(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부터 기층단위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당 조직에 있어서 도, 시, 군 당위원회가 구성되고 많은 지역에 세포조직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공장, 기업소, 농촌 등 생산현장에는 당단체와 세포조직이 아직 형성되어

20) 김일성,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5.12.17),” 「김일성저작집 1; 김일성,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5.12.18),” 「김일성저작집 1」.

21) 1945년 12월 당시 김일성은 당원의 성분구성이 노동자 30%, 농민 34%, 인테리, 상인 및 기타 36%라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당은 우선 노동계급의 전위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입당에서 노동계급의 우선성을 주장하였다.

22) 김일성, “평안남도 당단체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 평안남도 제1차 대표회에서 한 연설, 1945.12.27),” 「김일성저작집 1」, pp. 517~8; 김일성,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황해도 봉산군위원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46.1.13),” 「김일성저작집 2」, p. 10.

있지 않았다. 입당절차, 당간부의 선발 및 배치, 당규율 등 거의 모든 당사업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가 지방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단적인 예로 당시 당원들은 중앙에서 주어지는 유일당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셋째, 중앙당이 토착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된 지방당을 압도하지 못한 상태였다.²³⁾ ① 지방 당단체들의 자율적 행동이 심해서(김일성은 이를 ‘중과주의’ 또는 ‘지방할거주의’라고 칭함), 지방에서는 중앙조직위원회 지시를 무시하거나 중앙에서 파견된 간부를 거부하기까지 하였으며 간부등용에서 일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친분관계에 의해 등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②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공청)을 민주청년동맹(민청: 후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명칭 바뀜)으로 개편하는데 지방 당들이 협력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일찍이 일제의 반공선전 때문에 주민들이 공산주의에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 대중적 지지를 확산하자는 의도에서 공청에서 민청으로의 개편을 꾀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은 중앙의 침투력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었다. ③ 정기보고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각 도당에서 중앙위원회로의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은 지방사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편된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는 당세 확장에 이바지하였다. 당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식인의 구성비가 낮아지고 노동계급과 빈고농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더욱이 1946년 12월 3일 당 중앙상무위원회는 “당증수여와 등록절차에 대한 세칙”을 비준 발표하여 유일당증수여사업을 전개하고 이를 통해 김일성이 말

23) 초기 대표적인 북한지역 공산주의자들로는 평남의 현준혁과 김용범, 함남의 오기섭, 주녕하, 이주하, 황해도의 김용기와 김덕영, 함북의 장순명과 강진건, 평북의 백용구와 김제갑 등이 있었다. 裴垣達, 「北韓權力鬭爭論」, (서울: 學文社, 1990), p. 149.

14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하는 '사상적 유일성'과 '조직적 통일성'을 기하게 되었다.²⁴⁾ 물론 위의 세척이 당원들로 하여금 출신성분뿐만 아니라 당파 또는 종파 가담여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한 것을 고려하면,²⁵⁾ 우리는 유일당증수여사업이 파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파벌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었으며 중앙당의 침투력은 크게 확대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었다. 함경남도의 경우, 도당위원회가 중앙당의 노선과 지도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한 각 지방마다 정치학교를 따로 운영하면서 간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바,²⁶⁾ 미처 체계적인 정당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1946년 8월 28~30일 신민당과 북조선공산당과의 합당 결과로 열린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는 당세확장을 통한 대중정당의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당 공식기록에 의하면, 당시 공산당은 276,000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민당은 90,000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었다.²⁷⁾ 이제 전체 당원 수는 366,000명(전체 인구의 4%)²⁸⁾에 이르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북조선노동당을 노동자는 물론 농민, 지식인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대중적 정당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다.

24)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노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한 보고, 1948.2.2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79), pp. 138~9.

25)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서울: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67), pp. 106~8.

26) 김일성,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6.2.15),” 「김일성저작집 2」, pp. 43~51.

27)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력사연구소, 「조선노동당력사교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64), p. 185;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p. 450에서 재인용.

28)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p. 188.

“로동당은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며 조선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는 선진적인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들을 망라한 혁명적 정당입니다. 이것은 오늘 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국제국내정세에 비추어 좁은 계급적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중적 정당을 건설하여야 합니다.”²⁹⁾

김일성은 대중적 정당의 구축이야말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북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김일성의 대중적 정당의 꿈은 실현되어가는 듯 보였다.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가 열린 지 1년 반만에 열린 2차 당대회(1948.3.27~30) 당시 당원 수는 창립대회시의 2배를 넘는 725,762명(전체 인구의 8%)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상응하여 당세포와 공장당위원회 수가 증가하였고, 모든 면단위에 면당위원회가 설립될 정도로 조직 면에서도 많은 진전을 보았다.³⁰⁾

그러나 대중적 정당의 실현은 그렇게 용이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차 당대회를 즈음하여 김일성은 당세확장과 조직강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³¹⁾

첫째는 민주주의통일전선의 강화였다. 이것은 당세확장을 통한 대중적 정당 실현을 위한 장기적인 작업이었다. 물론 북조선노동당은

29) 김일성,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한 결론, 1946.8.29),” 「김일성저작집 2」, p. 384.

30) 김일성,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사업 결산보고와 결론 (1948.3.28),” 「김일성전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75~7.

31) 김일성, “우리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 순천군 당대표회의에서 한 연설, 1948.1.24),”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p. 55~9;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한 보고, 1948.2.21),” 「김일성저작집 4」, pp. 138~56; 김일성,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사업 결산보고와 결론 (1948.3.28),” 「김일성전집 2」, pp. 79~87.

16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1946년 신민당과의 합당 이후 당원 수가 급증하였지만, 조선민주당, 북조선천도교청우당 등 여타 정당과도 연대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민주당이 소자산계급, 기업가, 상인, 부농, 일부 소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우당이 주로 농민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한다면, 김일성이 이들 정당과 통일전선을 구축한다는 것은 해방 직후 노동계급의 당을 건설한다는 생각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이 소련 점령군의 지지를 받는 김일성 일파의 위성정당이었던 점에서 보면, 통일전선이란 이름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단독정권을 수립하려는 ‘사이비형 연립’이었던 것이다.³²⁾ 김일성은 이들 정당과의 친목회, 좌담회 등을 통해 북조선노동당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결국 허부조직으로 삼으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둘째는 세포조직의 강화였다. 이것은 단지 보다 많은 세포조직의 건설에 국한되지 않고 세포의 침투력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세포는 각종 회의를 통해 당정책을 선전·토의하고 당을 중심으로 균중을 동원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세포의 이같은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원 중에서 적극분자로서 기층 당조직의 초급간부를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였다. 이 점에서 김일성은 군당과 면당위원회에서 3~4명씩을 선발하여 정기강습과 일상훈련을 통해 ‘핵심’을 양성할 것을 제기하였다.

셋째는 새 간부의 과감한 등용이었다. 2차 당대회 개최시 이미 중앙당학교와 도당학교에서 새로 배출한 당간부만해도 5,000여 명에 이르렀다. 김일성은 간부선발과 관련한 스탈린의 말을 인용하면서 젊은

32) 예를 들어 민주당은 당을 이끌던 조만식이 연행되고 1946년 2월 24일 제1회 당대회에서 김일성 일파인 최용건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 들러리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또한 이 무렵 천도교세가 강했던 북한지역에서 청우당이 결성되었으나 이것도 곧 위성정당으로 전락하였다. 김학준, 「북한50년사」(서울: 동아출판사, 1995), p. 105.

간부를 헌신성과 능력에 따라 주저없이 선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방 후 새로 설립된 각종 간부양성기관이란 주로 소련군의 후견을 받고 있던 김일성 일파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바, 새 간부의 과감한 등용이란 곧 대중적 정당의 기간요원 확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김일성을 지지하는 간부세력의 확대라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이 대중적 정당을 건설한다고 해서 결코 타 정당과 정치세력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는 북한 지역내 토착공산주의 세력의 만만찮은 저항을 의식하고 있었고, 이 세력을 좌경기회주의 또는 우경기회주의, 지방할거주의, 분리주의, 종파주의, 영웅주의에 빠진 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타 정파의 핵심을 끊임없이 공격했다. 이 비난은 1948년 3월의 2차 당대회와 1949년 6월의 남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 때 오기섭, 이주하, 정달현, 최용달 등에게 집중되었다.³³⁾ 이들은 저급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의식의 소유자로 정치정세 파악에 미숙한 자들이라고 비난받았으며, 생존을 위해서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따르던 하위 간부들의 운명이란 가히 짐작할만하다.

2. 전쟁중 당중심의 권위구조 정착

한국전쟁 기간은 단순히 수백만의 희생자를 낳은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적으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역설적인 현상들이 발생한 중요한 시기였다. 역설적인 현상으로서 첫째는 전쟁이 어떤 단결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견고해지기

33) 김일성,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한 보고, 1948.2.21),” 「김일성저작집 4」, pp. 137~8; 김일성, “남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한 결론 (1949.6.30),”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보다는 오히려 당내 갈등을 표면화시켰고 숙청의 선봉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전쟁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군사 지휘권을 통한 권력 확대를 피하도록 만들기보다는 당권을 중심으로 권력을 공고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다.³⁴⁾ 이같은 현상들은 ① 당간부들의 비판사업을 통한 당규율 강화와 함께 하위 당간부직에 대한 배려라는 이율배반적 조치와, ② 타 조직(내각과 인민군)내에서의 당간부의 정치적 역할 제고라는 결과를 낳았다.

가. 간부배려 조치

전쟁 초기 당내 문제와 관련하여 1950년 12월 21~23일의 노동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 대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공군의 참전으로 12월 6일 평양을 탈환하기는 하였지만 전황이 결코 북한에게 유리하지만 않은 상황 속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강화, 특히 당규율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그가 전시에 당관련 사업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는 중국인민지원군을 통솔하던 팽덕희(彭德懷)가 실질적 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³⁵⁾ 전쟁에 관한 한 이제 인민군의 지위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당권 강화정책은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간부들을 전원회의에서 질책, 비판하고 숙청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비판의 대상은 2군단장 무정, 보위성 문화부장 김일, 북강원도 도당위원장 임춘추,

34)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군부, 정권, 당 중에서 김일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조직은 군부였으며, 가장 취약했던 조직은 당이었다. 이 점에서 전쟁이 그로 하여금 당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徐載鎮·姜元植·柳浩烈·金聖哲·吳承烈·全相仁 共著,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p. 490~4.

35) 스킨라피노·이정식,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p. 512.

남강원도 도당위원장 조진성, 경기도 도당위원장 박광희, 사단장 김한중, 사단장 최광 등에 맞추어졌다. 특히 독립동맹에서 성장한 무정은 중국통으로서 중공군이 군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김일성의 주요 경계 대상이 되었다. 그는 전쟁 중 법적 절차없이 부하를 총살한 사실로 군벌주의자로 비난받고 철직당하였다. 또한 김일은 비행기 없이 미군과 국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패배주의자로 낙인찍혀 철직대상이 되었다.³⁶⁾ 김일성은 고위 군 및 당 간부들을 숙청하는 것과 함께, 후퇴시기에 나타난 간부 및 당원들의 결함이 사상교양사업이 미약하고 당노선 침투정책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³⁷⁾ 그는 모든 당원과 간부들로 하여금 당의 사상에 어긋난 패배주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에 참여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면서도 전쟁 중 김일성의 당정책 특히 간부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율배반적 배려도 포함하고 있었다.³⁸⁾

첫째는 전시 과오로 징계받은 당원과 간부를 구제하는 것이었다. 당시는 후퇴중 당증을 손실하여 출당 또는 책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김일성은 당규율 강화가 징계의 기계적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피중에 당증을 매몰보관하여 징계된 경우에 대해서 1951년 9월 1일 결정서를 내보내 처벌 취소를 지시하였다. 그 결

36) 김일성, “현정세와 당면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0.12.2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139~40, 148.

37)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1950.12.23),”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11.

38) 김일성,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11.1),” 「김일성선집 3, pp. 300~21;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2.12.15),”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pp. 296~8; 김일성,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1.11.2),” 「김일성저작집 6, pp. 497~99, 506~7.

과 1년 3개월이 지난 1952년 12월 15일 당 중앙위 5차 전원회의 때까지 총 출당결정 건수의 62.1%, 책벌결정 당원의 69.2%가 취소되었다.

둘째는 리당, 초급당, 세포 등 하위 당조직과 초급 간부직 인사권의 하향화였다. 전쟁으로 인한 손실 중 가장 큰 것은 하위직책의 간부들의 희생이었다. 따라서 이들 공백을 그때 그때 보충하기 위해 당 중앙위의 간부부는 대체로 초급 간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가급적 도당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바뀌었다.

셋째는 전쟁 중 손실된 당원과 간부를 충원, 보강하려는 의도에서 계급적 성분에 대한 고려를 다소 약화하고 당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여기서 노동당의 특수성을 강조하였다.

“우리 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학설을 자기의 이론적 기초로 삼으며 레닌·스탈린당, 볼셰위크당의 투쟁 경험을 자기의 실천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역사적 조건과 경제적 발전수준에 의하여 자체 발전에 있어서 자기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³⁹⁾

여기서 특수성이란 다름아닌 산업화의 부재로 노동계급이 원래 미약하였으며 당시 노동계급의 50% 정도가 농민으로부터 신분전환했다는 점이다. 한편 당시의 농민은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를 통해 사회주의를 학습함으로써 의식있는 계층이 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김일성의 특수성 주장은 당사업에 있어서 계급적 성분에 크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김일성이 당 문호 개방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당시 경쟁관계에 있던 소련과 허가이

39) 김일성,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합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11.1),” 「김일성선집 3」, p. 295.

의 당원충원 방식을 ‘관문주의’ 또는 ‘좌경주의 오류’로 비판하고 나섰다. 아무튼 이같은 문호개방으로 전쟁기간중(정확하게는 1950년 6월부터 1952년 12월까지)에 45만명이 새로 입당하였으나, 이들의 정치적 수준과 질은 매우 낮아 문자해독률이 50%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나. 군대 및 내각의 당조직

전쟁기간 동안의 간부정책은 당의 정치적 역할 제고와 이에 따른 타 조직에서의 당간부 역할 증대라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민군내 당조직의 공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전시에 확립된 이같은 전통은 이후 더욱 발전되어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존속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당면한 현 위기 속에서도 군부가 체제수호의 보루로 남게된 데도 이바지하였다.

인민군내내 당조직이 건설된 것은 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였다.⁴⁰⁾ 1950년 10월 21일 당 중앙위 정치위원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군내내 정치조직은 일찍이 존재해왔다. 전쟁 전 평양학원, 보안간부학교,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등에 소련군의 정치위원제를 모방한 문화부 또는 정치부가 설치되어 있었다.⁴¹⁾ 또한 보

40) 김일성, “인민군내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10.21),” 『김일성저작집 6』, p. 145; 김일성, “인민군내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제 (조선인민군 군단, 사단정치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51.3.6),” 『김일성저작집 6』, p. 317; 김일성, “인민군내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2.7.7),”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308, 313.

41)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표논문 (북한 군사문제의 해부: 역사적 변천과 김정일체제하의 북한군, 1997.2.26), p. 8.

위성내 문화훈련국이란 이름의 정치기구가 선전선동사업을 관장하였으며, 최하 중대단위에 문화부중대장이 있을 정도로 정치군관 제도가 각급 단위부대에 설치되어 정치교양사업과 함께 당원들과의 사업을 다루고 있었다. 원래 인민군의 존재 가치가 정치적이었고 군관들이 기본적으로 당원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찍부터 군대내 정치기구가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인민군대가 노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고 군대내 노동당 이외에 어떤 당조직도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구체화된 것은 바로 이상의 정치위원회 결정이 있는 후였다. 보위성의 문화훈련국이 총정치국으로, 각급 문화부가 정치부로 개편되었다. 김일성은 당규율 강화를 위해 노동당내 기층조직인 세포의 중요성을 역설했듯이 인민군내 당조직 중에서도 중대단위의 당조직인 세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대의 세포와 세포위원장의 역할이 실제로 중요했다는 사실은 김일성이 중대와 당세포가 정치사업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인민군 총정치국으로 하여금 모범중대운동을 벌이게 한데서도 알 수 있다.

인민군대내 당 조직이 형성된 만큼 정치군관들의 역할은 일반 지휘관의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었다. ‘군사유일관리제’라는 구호아래 원칙적으로 정치군관의 역할을 군사지휘관의 명령하달과 이것의 집행을 도와주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런 원칙이 위반되는 사례는 빈번하였다. 그 이유는 정치군관들의 독특한 역할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군사지휘관이 당의 전략전술과 최고사령부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감시하고 군사지휘관의 표징인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배양하는 사상교양사업을 맡고 있었다. 또한 군대내 정치군관은 군사지휘관에 대한 인사사업에 관여함으로써 이들을 장악·통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이 정치군관이 군대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전통은 소련군대에서 비롯되었는 바, 군대내 당조직이 존재한 이상 군사유일

관리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상의 문제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다.⁴²⁾

전시 당의 군대내 역할 강화와 함께 내각에 대한 통제 강화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우리는 당과 내각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김일성 발언에서 그가 명실상부한 당우위 국가를 강렬히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국장동무가 토론에서 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마치 국이 당으로부터 독립하여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국장이 당원인 것인 만큼 그가 하는 사업이 비록 행정사업이지만 결국은 당이 맡긴 사업입니다. 우리는 내각에 가서 일할 때에는 내각 일을 하고 중앙당에 가서 일할 때에만 당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원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당에서 맡은 사업이며 당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⁴³⁾

이것은 김일성이 군대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각에 대해서도 당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야 함을 논하는 것으로서 일찍이 그에게 볼 수 없었던 언급이었다. 이제 그는 1950년 12월의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소위 타 조직에 대한 지도적 권위를 공고화하고 당중심의 권위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같은 노력은 전쟁이 끝나면서 결실을 보게 되어 사회주의적 개조와 전후복구기간 동안 당간부의 역할(특히 경제부문에서)이 그 이

42) 梁興模, “共產軍의 政治組織制度,” 北韓研究所 編, 「北韓軍事論」, pp. 137~9.

43)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1.3.18),” 「김일성저작집 6」, p. 362.

24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전 시기보다도 훨씬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전쟁기간은 당과 당간부의 실질적 권위 강화를 위한 전환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III. 체제발전과 간부정책의 강화: 1954~1973

1. 전후 당위원회 중심의 권위구조 강화

한국전쟁 후 1950년대 북한의 변화는 본격적인 사회주의적 이행은 물론이고 체제의 급속한 발전이란 특징을 지니고 있다. 북한은 급속한 전후복구와 공업화와 함께 농업협동화를 완성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전환을 이룩하였다. 또한 친리마운동의 진개를 통해 체제의 동원능력을 향상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일성 일파는 발전전략을 둘러싸고 발생한 당내 투쟁에서 연안파와 소련파를 제압함으로써 자신의 당내 입지는 물론이고 당의 권위를 극대화시켰다. 이 기간중 간부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점이 두드러졌다. 하나는 각급 당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지도적 역할이 제도화되었으며, 그 결과 당과 당간부의 권위과 역할이 급상승되었다. 이것은 체제내 권위구조의 핵심적 부분인 당과 타 조직간의 관계가 '당적 지도'란 용어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반대세력 잔재의 숙청과 계급교양의 강화였다. 이것은 노동당을 김일성의 사당(私黨)으로 전환하고 사회주의적 전환을 완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 바, 간부들에 대한 살벌한 '중앙당 집중 지도'와 자기비판 및 상호비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가. 간부인사의 실무적 전환

전쟁 직후에 나타난 가장 시급한 대책 중의 하나는 간부의 부족문제를 푸는 것이었다. 전쟁은 생산시설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

부의 소실을 낳았다. 많은 간부가 전사하였거나 인민군에 잔류함으로써 전후복구에 참여할 간부가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 특히 내각의 경제관련 부서의 경우, 성과 국 등 상급기관에 간부가 집중되어 실제 생산단위인 기업소나 건설현장에는 전체 간부의 28%만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였다. 더욱이 생산단위에 배치된 간부마저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아 전후복구와 경제건설에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⁴⁴⁾ 북한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원을 계속 충원하여 간부 후보군을 확대해 나갔으며, 간부의 등용배치를 보다 실무적으로 행해 나갈 것을 각급 당조직에 종용하였다. 그 결과 전쟁기간 동안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원 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1956년 1월 1일 당시 1,164,945명, 당의 기층조직인 세포 수는 58,259개에 이르렀다. 이것은 2차 당대회 때보다 439,183명 당원과 28,496개의 세포가 증대된 수치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세포의 증대는 동시에 초급 간부의 확대를 의미하였다.

북한은 간부 후보군의 확대와 함께 간부인사를 당조직사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하면서,⁴⁵⁾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통한 실무적 노력을 경주하였다.⁴⁶⁾

-
- 44)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합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307.
- 45) 예를 들어 김일성은 “당조직사업은 곧 간부사업이며 간부사업을 잘하여야 당을 튼튼히 꾸릴 수 있습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417.
- 46)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pp. 346~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p. 278; 김일성,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p. 421.

첫째, 간부의 선발에 있어서 문서요해뿐만 아니라 현장주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물론 현장주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실무능력 위주로 간부를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에는 정치적 표징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는 바, 김일성이 간부선발에서 실무가 너무 강조되어 간부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한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장주의 원칙은 문서를 통해 출신성분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므로 생산현장에서 당정책에의 충실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런 맥락에서 당시 북한에서는 간부를 등용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 과정을 통해서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규칙이 되었다.

둘째, 생산과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향적 간부배치 원칙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상급 관리기구를 축소하고 생산현장에 간부를 파견하는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같은 조치는 대체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중공업성의 경우, 부상들이 관리국장을 겸임하고 관리인원을 감축하는 기구개편을 실시하여 남은 하위직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같은 중공업성의 성공 사례는 내각의 타 성(省)으로 대대적으로 전파되었다.

나. 당위원회의 제도화

전후 북한은 당의 조직적 침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체적 결정기구인 당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경제기관(특히 공장 및 기업소)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구하였다.⁴⁷⁾ 기존의 각급 당조직은

47) 전쟁기간 동안에 각급 당단체에 의한 당적 지도가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지만, 이것은 주로 농촌지역에만 해당되었다. 북한에서 당적 지도가 보편화된 것은 전후 시기, 구체적으로 1954년 3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공장, 기업소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자가 후자를 직접 관찰하는 당자체 기구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에 대한 침투력을 배가시키는 매우 혁신적인 장치였다. 주목할 것은 공장지역의 당위원회는 당간부, 지배인과 함께 핵심노동자를 당 위원으로 선출하여 집체적 협의체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같이 노동자를 중요시하는 당정책은 노동계급 출신이 군당위원장을 맡도록 한데서도 나타났다.)

북한이 전후 당위원회 제도화를 통한 집체적 지도를 추구한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생산현장에서 초보적 지식이 부족한 지배인의 오류를 막으려는데 있었다. 특히 공정, 노동력 배치, 생산도표, 작업정량 등에 무지한 지배인의 주먹구구식 생산방식을 차단하려고 하였다.⁴⁸⁾ 둘째는 각급 당위원장의 독단을 저지하려는데 있었다.⁴⁹⁾ 즉,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당 책임자들이 당권으로 지배인을 누르고 그의 사업을 대행하거나 또는 정반대로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물론 집체적 지도의 원칙이 그대로 실현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민위원회와 생산단위 지배인이 생산업무를 담당하고 당위원회가 사업의 방향제시와 지도감독을 맡기로 했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김일성이 한탄한데서 드러난다.⁵⁰⁾

48) 다음의 김일성 언급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배인의 주먹구구식 생산방식에 대한 비판은 매우 거셌다. “이러한 지배인들이 지도하는 공장들과 탄광, 광산들과 수산 및 립산 사업소들에서는 일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한사람이 하루동안에 할 일을 20명이 넘는 노동자가 달라붙어 만나 절에 하여도 시간을 앞당겼다고 만세를 부르며 5~6명의 노동자가 2~3일 동안이면 끝낼 일을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하루에 하여도 계획을 넘쳤다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p. 305.

49) 김일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p. 348.

당위원회를 통한 집체적 ‘당적 지도’ 원칙은 인민군의 경우에도 그 대로 적용되었다.⁵¹⁾ 김일성은 1958년 2월 8일 군창건 10주년 기념발 언 및 동년 3월 8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군대내 당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제기 함으로써 지휘관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은 곧 보위성, 군단, 사단, 연대 등 상급단위에 당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전에는 이들 상급단위에 당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군단 및 사단의 지휘관은 물론이고 정치부장들조차도 당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따라서 군대 운영에 대한 당적 지도와 고급군관들의 당조직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전쟁 중 제시된 ‘군사유일관리제’ 원칙은 무너져 내려 정치군관의 독주나 독단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의도한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와 거리가 먼 것이었다.

북한은 이같은 문제를 시정하고자 인민군대내 정치조직을 그대로 두어 상명하달 체계를 유지하되, 당위원회라는 집체적 결정기구를 통해 각급 단위에서 개인의 독주를 막고 병사들의 당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침투력을 제고하려고 했다. 실제로 당시 총정치국장이었던 최중학이 총정치국 계통을 통해 개인적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있었던 바, 김일성은 이를 우려하여 각급 당위원회로 하여금 총정치국에 의한 군대내 당조직의 획일적 지도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막도록 했던 것이다.⁵²⁾

50) 김일성, “당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당일군들과 당조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57.7.5),”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p. 103~4.

51)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324군부대 관할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2.8),” 「김일성선집 5」, pp. 345~6; 김일성,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3.8),”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p. 166~7.

52) 鄭永泰, 「金正日 體制下の 軍部 役割」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33.

당위원회가 제도화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지방의 당조직, 특히 군당(郡黨)조직이 개편되었다. 즉, 군당위원회의 직제를 고쳐 당규약에 맞는 지도기관으로 꾸리고자 하였다. 북한은 군당위원회(30명 정도의 인원)에서 조직부(조직비서)와 선전부(선전비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서를 없앴다. 이는 군당이 행정사업을 대행하지 말고 당적 지도만 하라는 취지였다. 기존에는 군당위원회에 산업부, 농업부 등이 있어 공장 당단체나 협동농장관리위원회 등이 할 수 있는 일에 간섭하면서 인력이 딸린다는 주장이 빈번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같은 문제가 애당초 불필요했던 부서들의 행정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고 이 부서들을 없애으로써 해결하려고 하였다. 대신 군당위원회의 조직비서와 선전비서 등을 비롯한 당간부들이 초급당단체들의 생산문제 관련 사업분담, 당생활 지도, 간부요해, 당핵심 육성, 군인민위원회(100여 명 정도의 인원) 동원에만 전념하게 만들었다.⁵³⁾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군당위원회의 직제가 이전보다 단순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군당위원회의 권한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군당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정은 위반이 불가능한 법과 같은 것으로 여겨짐으로써 그 권한이 명확해졌다. 특히 군당위원회의 인민위원회에 대한 지도적 역할이 명료해졌는 바, 이들 사이의 관계는 김일성의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한 방향에 따라 모든 사업이 조직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군인민위원회도 이 방향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인민회의가 일단 결정을 하면 그것은 곧 법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변경하고 위반할 권리가

53) 김일성, “당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당들 앞에서 한 연설, 1958.3.7),” 『김일성선집 5』, pp. 403~10.

없습니다....군당위원회는 인민경제계획의 실행정형에 대하여 일상적인 대책들을 토의결정해야 합니다. 군인민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해당한 대책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군당단체들은 그것을 적극 협조보장해야 합니다.”⁵⁴⁾

다시 말해, 군인민위원회는 조직상 도인민위원회에 속하지만 당적으로는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군당위원회 앞에 책임지는 행정기관이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당간부와 행정기관 간부의 관계는 흔히 배에서 키잡는 사람과 노젓는 사람간의 관계로 비유되기도 하였다.⁵⁵⁾ 그러나 이같은 관계는 III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간부의 권한 증대에 따른 빈번한 행정식 사업방식과 세도를 낳기도 하였다.

다. 간부숙청과 계급교양

숙청은 체제형성기의 정치적 연립이 청산되는 과정, 즉 개인독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자비한 정치적 갈등의 표현이다. 북한에서 숙청은 전쟁중 남노당파에 대한 ‘미국 고용간첩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련파와 연안파에 대한 ‘8월종파사건’(1956.8)에 이르기까지 정치사에 하나의 커다란 획을 그었다. 이 시기 숙청의 대상에는 최고위 엘리트부터 시작하여 당간부, 행정·경제간부, 지식인 등 거의 모든 분야의 지도급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중하위 간부급의 숙청은 종파사건 이후 집중적으로 이루어

54) 김일성, “강서군 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2.23),” 「김일성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27.

55) 김일성, “당사업 방법에 대하여 (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2.26),” 「김일성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p. 282.

졌다. 1957년 5월 30일 김일성은 당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반혁명 분자와의 투쟁을 전당, 전인민적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의제를 채택 결정하였다. 당간부의 차원에 국한시켜 보면 소위 반혁명분자는 이미 ‘8월종파사건’으로 숙청당한 고위급 소련파, 연안파, 남노당계 인사들의 후견을 받았던 사람들을 지칭한 바, 현실적으로 이들은 김일성의 노선 또는 정책에 반대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생존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던 처지였다. 따라서 우리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이란 다분히 ‘8월종파사건’의 잔재처리를 위한 정치투쟁이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집중지도는 종파분자의 잔재처리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으며 월남자가족, 지주 및 상인가족, 형북역자 등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취해졌다.) 아무튼 당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위 ‘중앙당 집중지도’는 1958년과 1959년에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이 사업은 후일 당 조직지도부장을 맡게 될 김영주에 의해 주도되었다.⁵⁶⁾

집중지도가 대대적으로 전개될 즈음에 김일성은 간부들이 검열을 무서워해 명칭을 집중지도로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집중지도는 ‘지도그루뻑’이 지방에 내려가 당의 정책을 강연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인식시키고, 이를 인식한 간부들과 당원들이 스스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통해 결함을 모조리 폭로하는 것이었다.⁵⁷⁾ 그러나 주된 목적은 결함을 폭로하는 것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근거하여 갖가지의 책벌을 가하는데 있었다.

집중지도를 통한 숙청의 폐해는 매우 컸다. 먼저 당 및 행정기관의

56) 共産黨問題研究所, 「北韓總覽, 45~68年」(서울: 共産黨問題研究所, 1968), pp. 185~90.

57) 김일성, “당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당들 앞에서 한 연설, 1958.3.7),” 「김일성선집 5」, p. 396.

리급 간부 이상자로서 출당, 철직, 강등의 책벌을 받은 사람의 수는 북한 전역에 걸쳐 60% 이상을 점하였다. 또한 당간부의 전면 저축으로 당위원회를 일단 해체하고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곳도 있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단 1명의 간부를 제외하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출당, 철직, 강등의 책벌을 받고 물러났다. 개성지구에서는 시당위원장, 군당위원장, 내무서장의 교체가 있었고, 황해남도에서도 부위원장급 2명과 내무국장, 군당위원장 10명, 군인민위원장 12명이 교체되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는 부족한 당간부를 보충하기 위해 지방의 리당위원장급 간부들을 차출해와야 했다고 한다.

전후 사회주의체제 건설기 숙청에 못지 않게 간부들을 짓눌렀던 것은 계급사상교양이었다. 농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로 요약되는 사회주의적 개조는 숙청과는 별개로 계급교양을 동반하였는 바, 이것은 노동계급이 부재했던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면 생산관계의 개조는 노동계급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북한에서 사상교양에 의한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이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간부와 당원들에 대해 계급교양을 강화해야 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전쟁중 희생된 간부 및 간부후보군을 충원하기 위해 당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당원의 약 50%가 전후 신입당원이며 당원 총수의 60%가 농민성분이었다. 더욱이 노동자출신 당원들조차도 원래는 농민과 소시민출신으로 전후복구기에 신분이 전환된 사람들로서 노동계급 의식이 결여되었다. 김일성에 의하면,

“조선로동계급은 아직 청소하며 대규모적인 혁명을 통하여 단련되고 세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대렬은 8.15해방 이후에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전

후복구 시기에 대량적으로 증대되었으며 그 대부분은 농민들과 도시소시민 출신들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로동계급대렬내에 여러 가지 락후한 사상의식이 침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일부 로동자들 속에서 안일하고 부화하고 비규률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의 주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⁵⁸⁾

농촌 초급간부들의 경우, 형식상 노동계급 출신자로 구성하였지만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도간부학교에서 3개월 단기교육을 받고 배치되었으나 양곡수매사업에 실패하고 개인상공업을 무제한 허가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 즉 농업협동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⁵⁹⁾

김일성에 의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당의 선전담당 간부들이 북한의 특수한 계급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교조주의에 빠졌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제3차 노동당대회(1956.4)에서 사상사업 담당 간부들을 질타하는 가운데, 이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지식으로 소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북한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⁶⁰⁾ 즉, 사상사업 간부들부터 북한의 계급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간부들과 당원들 의식의 계급적 전환을 이룩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계급사상교양은 천리마운동의 전개와 함께 더욱 강력히 실시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11월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계급교양을

58) 김일성,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p. 251~2.

59) 김일성,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5.2.2),” 「김일성저작집 9,」 pp. 215~9.

60)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pp. 289~95.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제기하였는데,⁶¹⁾ 이를 계기로 계급교양은 소위 ‘인간개조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었다.

전후 북한에서 계급교양의 강화는 간부들이 지녀야 할 가치규범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이제까지 이상으로 여겨왔지만 실현시키지 못했던 계급 개념을 타 정파와의 정치적 갈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주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목할 것은 계급교양이 숙청과 함께 간부들의 체제순응적 성향을 높이는데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자발적 참여동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2. 경제발전기 계급적 가치규범 지향

1961년 9월의 제4차 노동당대회는 ‘8월종파사건’과 ‘중앙당 집중지도’를 통해 김일성이 모든 정파를 제압하고 유일적 지배의 기초를 다진 후에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집회였다. 더욱이 이 대회는 남한에서 ‘조국근대화’를 표방한 군사정권이 탄생함에 따라 남북한 체제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고되는 상황하에 개최된 중요한 회의였다. 제4차 당대회를 계기로 북한은 계급적 노선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를 강화시켜 나간다는데 중요한 체제목표를 두게 되었다.⁶²⁾ 북한에서 이같은 노력은 권위구조 측면에서 생산현장에서의 ‘당적 지

61) 김일성,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11.20),” 『김일성저작집 12』, pp. 580~606.

62) 이같은 목표 설정은 노동계급의 약진을 발판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특히 노동자 출신의 당원 및 간부의 증가가 그것이다. 1961년 8월 1일 당시 당원 수는 1,311,563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17.5%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노동자 비율은 30%로서 1956년 4월의 제3차 당대회의 17%에 비해 훨씬 높았다. 또한 당정의 노동자 출신 간부는 31%로서 제3차대회의 24%보다 증가하였다.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p. 193.

도' 의미를 제고시키고자 노동자 및 노동자출신 간부가 참여하는 집체적 결정기구인 당위원회 역할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치규범 측면에서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구호아래 계급노선을 재천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는 바, 계급 원칙이 또다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가. 생산현장의 당위원회 강화

생산현장에서의 당위원회의 중요성은 김일성이 1961년 12월 대안전 기공장을 현지도하고 그 경험을 종합하여 대안의 사업체계란 경제관리방식을 제시하게 되면서 새삼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전부터 공장과 같은 생산조직에 당위원회가 존재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배인의 권한과 책임이 커서 그것이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기로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명실상부한 '당적 지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공장당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당간부의 권위 증대를 가져왔다는 점인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당위원회가 생산영역은 물론 정치적인 영역에 관여하는 기구인 까닭에, 경제와 정치 모두에 대해 발언권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인 당간부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공장당위원회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과 일부 당원, 행정관리자, 노동자, 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생산계획, 공정과정, 역할분담 등 생산관련 문제를 관장함은 물론이고 당정책의 선전과 당생활 지도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경제와 정치분야 모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여기서 정치적인 문제에 간여하고 생산목표를 당지침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행하는 당간부의 권위는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공장당위원회가 집체적 결정기구인 만큼 공장의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당을 등에 얹고 일하는 당간부의 권위는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공장당위원회의 설립으로 형식상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 사이의 관계가 통제(또는 갈등) 차원에서 융합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집체적'이란 구호 속에 소속 위원들이 점차 자신의 기본업무와 권한을 포기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당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안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으며 다소 모험적인 동시에 창의적인 제안을 내지 않게 되었다.⁶³⁾

셋째, 공장당위원회가 합리적 합의도출을 어렵게 할만큼 규모가 방만해져서(1962년 당시 대안전기공장의 당위원회는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실질적인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같은 여건 속에서 모든 경제의 운용이 당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당생활에 간여한 만큼 당간부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었다.

행정·경제간부의 역할은 감소하고 당간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하게 됨에 따라 두 가지의 관료제적 병리현상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행정대행'으로 당간부가 행정경제 사업에 일일이 참견하고 전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사안일주의로서 당간부가 집체적 의사결정의 약점을 이용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다.⁶⁴⁾ 결국 당간부는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반면, 행정·경제간부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생산현장에 대한 당의 집체적 지도가 분업과 개인책임이란 두 가지 원칙에

63) 金台鎔,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p. 39.

64) 김정민과의 면담, 1997.9.18.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회주의체제 간부관리의 한계를 드러내놓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⁶⁵⁾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생산현장에서 당위원회의 역할 강화는 간부정책 특히 당간부 직책의 안정화를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은 제4차 당대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승리를 자축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경제관리방식을 택하고 당간부의 역할을 정착시켰는 바, 이제는 간부직책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체제발전을 꾀한 것이다. 김일성은 “둘째 머느리를 맞아 보아야 맏머느리가 무던한 줄 안다”는 속담까지 인용해 가며 간부들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빈번한 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간부들이 한 직책에 5년~10년씩은 머물러야 하며 생산의 마지막 행정단위의 군당비서는 10년 정도 경력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⁶⁶⁾ 간부직책의 안정화란 기본 골간은 차후 논의하게 될 3대혁명소조운동이 전개되던 기간 동안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나. 간부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가치규범 측면에서 북한 간부정책의 근간은 계급노선을 지키는 것이었다. 해방 후 당세확장 과정과 한국전쟁 기간에 일시적으로 계급노선을 완화하기도 하였으나, 1960년대에 접어들어 더 이상 당세확장에 엇매일 필요가 없는 상황하에서 계급노선을 재강조하게 되었다.

65) 중국의 경우, 토지개혁이 실시되던 시기 당지도부는 관료주의 문제를 예상하고 간부학습자료에 이같은 사항을 명기하여 훈련시킨 바 있다. 趙在璣, 「共產主義 幹部制度 研究」, p. 112 참조.

66) 김일성, “량강도 당조직들 앞에서 나서는 과업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3.8.16),”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88.

간부정책에 있어서 계급노선의 강조는 소위 ‘혁명화, 노동계급화’란 구호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물론 이 구호는 간부정책에만 해당된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지식인에 대한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지식인을 하나의 계층으로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았으며,⁶⁷⁾ 점차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체제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간부정책에 있어서 ‘혁명화, 노동계급화’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오랫동안 사회주의의 이상으로 간직해왔던 계급노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간부들이 지녀야 할 가치로서 강요한 것이었다. 동시에 간부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계급적 가치는 1960년대 후반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바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귀결되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면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화, 노동계급화’란 어떤 것이었는가? 김일성에 의하면, 이것은 사람 머리 속에 남아있는 소부르조아사상 잔재를 당성, 계급성, 인민성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혁명화와 노동계급화는 서로 보완적인 개념들이었는 바, 혁명화는 사상적 개조의 측면을 강조한 반면, 노동계급화는 노동자 이외의 다른 계층의 존재를 불인정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농민과 지식인이 혁명화를 통해 노동계급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자라고 해서 무조건 혁명화의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일성은 말하기를,

“혁명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다 해당됩니다. 로동계급도 마땅히 혁명화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이 되면 혁명화가 저절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에서 마치를 들고 일하는

67) 金聖哲,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p. 99.

40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로동자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다 혁명적 세계관이 선·사람으로, 다시 말하여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맑스-레닌주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한 견결한 혁명가로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⁶⁸⁾

이같은 인식하에서 김일성이 간부들에게도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강조하였던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간부들에 대한 ‘혁명화, 노동계급화’ 작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⁶⁹⁾

첫째는 당생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중앙당의 경우 그 이전까지 매달 1회만 열렸던 세포총회의 빈도수를 늘리고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비서, 부장들이 참여할 것을 촉구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중앙당의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역할을 각각 의사와 약제사에 비유하면서 당조직생활이 혁명화의 중요한 실천사항임을 강조하였다. 또 도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직부 간부들은 도, 시, 군의 당조직과 인민위원회의 당세포회의뿐만 아니라 공장, 학교, 농촌 세포회의에도 참여하여 간부 및 당원의 당생활을 감시하였고 간부의 능력과 충성심을 구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당의 조직지도부와 도당의 조직부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향상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더욱 심해졌으며, 그만큼 체제의 경직성은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68) 김일성, “우리 당의 인텔리정책을 정확히 관찰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텔리를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369.

69) 김일성,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6.10.18),”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p. 404~441; 김일성,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옳게 관찰할데 대하여 (도당 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p. 78~90.

둘째는 간부 인사에 있어서 형식주의 타파라는 이름아래 충성심을 요건으로 삼는 조치였다. 김일성은 간부인사(특히 선발)와 관련하여 문건에 의존하는 형식주의 경향을 비판하면서 선발의 대상이 노동자 출신이라고 해도 문건의존은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형식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당간부 인사의 경우, 조직부장(또는 행정·경제간부 인사의 경우, 간부부장)이 사람을 대하고 인사관리할 것을 지침으로 내세웠다. 그가 이같은 지침을 낸 형식적인 이유는 북한 노동자가 일제하 자본주의에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 이유는 대상의 계급적 토대뿐만 아니라 수령인 김일성 자신에 대한 충실성을 간부인사의 관건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1960년대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1950년대 후반의 계급교양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할 수 있다.

IV. 김정일 등장과 간부정책의 전환: 1974~1997

1. 후계준비기 간부통제 강화 및 가치규범 변화

김정일은 1970년대 초, 구체적으로는 1973년 9월 노동당 중앙위 제 5기 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 비서’로 지명되고 이듬해 2월 8차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으로 발탁됨으로써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자리를 잡았다.⁷⁰⁾ 그가 당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후계자 지명은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장악 및 김일성주의화의 선언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은 전문 당간부에 의한 당생활의 강화와 3대 혁명소조의 파견으로 간부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김일성주의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으로 당 및 여타 간부들의 가치규범의 준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이같은 김정일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당중심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가. 당조직생활 강화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당의 중추기관인 조직지도부를 장악하고 가장

70) 김정일이 후계자로서의 첫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67년 3월 당 중앙위 제4기 15차 전원회의 직후이다. 김정일은 당 사상부문 간부들에게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역설하면서 김도만, 이효순, 박금철 등을 반당·반혁명 수정주의분자로 숙청하기 위한 실무작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그는 이미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힌 셈이었다. 스키리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p. 105.

심혈을 기울인 것은 당조직생활(또는 당생활)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당이 지배하는 체제에서 당조직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침투해있으며, 생산현장에서 당위원회가 집체적 기구로서 정치와 경제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 등장 이후의 전문 당간부(당사업만을 전담하는 유급 당간부)에 의한 당생활 강화는 최고 권력엘리트의 의도와 노선을 침투시키려는 순수한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조치였다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김정일이 당생활 강화를 통해 간부들에 대한 통제기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정무원 산하 부서(위원회 또는 부)내의 당조직을 정비하고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김정일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한 지 얼마 안된 1974년 6월 그는 다음과 같은 작업들을 개시하였다.⁷¹⁾

첫째, 김정일은 그 이전에 정무원 부서의 핵심간부들(위원장, 부장, 부부장, 총국장 등)이 당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질타하고, 중앙당에서 각 부서로 파견된 전문 당간부가 이들의 당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도록 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무원은 생산현장이 아니라 행정위주의 기관인 만큼 당위원회의 역할은 정책적 지도보다 간부들의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⁷²⁾ 따라서 그는 '2일 및 주당생활총화'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화요학습, 수요강연, 금요노동, 토요학습, 매일 2시간 학습 등 다양한 간부학습을 제도화시켰다.

둘째, 김정일은 당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당 부서의 핵심간

71) 김정일,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6.1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140~59.

72)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당위원회의 '당적 지도'라고 할 때 당생활 지도와 당정책 지도를 의미한다. 생산현장에서는 두 가지의 지도가 모두 중요한 반면, 행정·경제기관에서는 사실상 당생활지도만 중요하다. 현성일과의 면담, 1997.10.15.

44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부는 물론 산하 공장, 기업소의 핵심노동자(예를 들면, 탄광의 착암공, 굴진공 등)를 망라함으로써 간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부기관의 전반적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김정일은 정무원 부서의 행정지도체계에 상응하는 각급 당조직의 위계질서를 구축하였다. 그는 기존 정무원 산하 위원회·부·총국·국·처·자재상사 등에 모두 동등한 규모의 당조직, 즉 초급당이 있거나 하급 행정기관에 더 큰 당조직이 있는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당의 조직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총국에는 당원 수가 적어 분초급당 또는 부문당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의 자재상사에는 당원이 많아 초급당위원회를 두는 곳이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위원회, 부, 총국 등 상급 행정기관의 당비서는 중앙당에서 파견한 유급 전문 당간부가 맡도록 하여 정무원 부서내 당조직의 위계를 확립하였다. 이는 매우 획기적인 조치로 여겨지는 바, 행정간부가 당비서직을 겸임하는 무급체제에서 당사업(특히 당생활)과 행정사업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였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당생활에 대한 강조는 거의 필사적일 만큼 대단하였다. 그는 당생활지도의 중요성을 각급 당조직(도, 시, 군 당위원회)의 조직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생활을 기본사업으로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⁷³⁾ 실제로 김정일 등장 이후인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당생활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1개월에 한번 개최되던 세포총화가 당생활총화의 전부였으나, 김정일 등장 이후 매주 세포에서 당생활총화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당생활이 중요해진 만큼 당생활에 관여하는 당간부(또는 정치군

73)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 있게 다그치자 (전국 당조직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주체혁명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186.

관)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여기서는 인민무력부와 외교부의 당조직과 당생활에 대해 소개하기로 하자.⁷⁴⁾

인민무력부내 당조직은 총정치국 관할 하에 지도·통제되고 있는 동시에, 각급 당위원회에 의한 집체적 지도의 원칙에 의해서 운용되어 오고 있다. 각 국은 초급당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것의 하부 기관인 각 부는 세포를 형성하고 있다. (초급당의 비서와 부비서들은 모두 당 사업을 전문하는 정치군관들이다.) 대외사업국의 경우, 초급당비서(대좌)와 2명의 부비서(조직담당, 선전담당), 국장(소장), 2명의 부국장, 부장(대좌)들 모두를 포함하는 13명 정도의 초급당위원회에서 군사의 교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행정사항을 협의하고 당생활을 주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초급당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운용하고 간부인사나 징계 문제 등의 비밀사항을 다루기 위한 초급당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초급당비서 및 부비서, 국장, 부국장 2명, 핵심부장들이 들어간다. 대외사업국 초급당위원회가 정책적 지도를 행하는 것으로서 러시아군사대표단의 북한 초청건을 다룬다고 하자.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장이 초청장발부, 영접, 회담발언 문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토론한 후 초급당비서가 결론을 내리고 분공(역할분담)을 주게 된다. 또한 러시아대표단을 환송한 다음에는 그 결과를 총화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게 된다.

인민군대내 당생활총화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2일 당생활총화, 주당생활총화, 분기당생활총화가 그것이다. 2일 당생활총화는 이틀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서 주로 총정치국 산하 협주단, 교예단, 예술학원과 군단의 기동선전대에 소속된 연예인 당원들에게 적용하는 생활총

74) 최주환과의 면담, 1997.11.5; 현성일과의 면담, 1997.10.15.

화 방식이다. 주당생활총화는 일반 당원들에게 적용되며 세포별로 이루어진다. 또한 분기당생활총화는 연예인 당원을 포함한 모든 당원에게 적용되며 초급당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대외사업국의 경우, 각 부가 하나의 세포를 구성하며 세포비서는 주로 부부장이 맡지만 때로는 지도원이 맡는 경우도 있다. 주당생활총화(또는 2일 당생활총화)에서 각 당원은 2분 이내의 자기비판 후에 반드시 다른 당원에 대한 상호비판을 해야 한다. 당생활총화를 개최하는 요일은 부대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인민무력부에서는 매주 토요일 첫 시간에 개최하며 전체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자기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김일성교시, 김정일지시, 또는 유일사상체계확립10대원칙의 한 조항을 인용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기결함이나 과오를 비판하여야 한다.

주당생활총화에는 해당 부대의 당위원회 집행위원들이 필요에 따라 참석하여 총화를 지도, 감독하기도 하는데, 그 빈도는 대략 1개월에 1회 정도이다. 때로는 해당 부대보다도 상급의 정치기관에서 총화 지도를 나오기도 하는 바, 주로 고위 군관들이 소속되어 있는 세포의 당생활총화에 참가한다. 그 이유는 간부들에 대한 상호비판의 이행여부와 간부들의 수용자세 및 입장을 감독하기 위해서다. 총화는 세포비서의 결론으로 끝난다.

분기당생활총화(초급당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7~8명의 자기비판자가 원고를 읽고 상호비판을 받게 된다. 초급당비서는 약 2주 전부터 총화를 준비하는데, 비판자의 원고를 검열하고 수정할 뿐만 아니라 초급당위원회를 열어 각종 보고서의 내용을 토의 및 합의한다. 분기당생활총화는 통상 일요일에 3~4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한다.

분기당생활총화는 회의집행부를 선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 집행부는 초급당집행위원회와는 별개의 것으로서 초급당비서, 부비서,

해당 부대장, 회의지도성원 등으로 구성된다. 회의지도성원은 일반적으로 상급부대 정치부 당생활과의 과장 또는 책임지도원을 말하는데, 인민무력부 분기당생활총화인 경우에는 총정치국 조직부장(중장) 또는 조직부부장(소장)이 지도성원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집행부 선거가 끝나면 회의지도성원이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낭독하고 초급당비서가 보고를 하는데 결함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분기당생활총화에서는 주로 군관들이 자기비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병인 경우에도 중요한 과오를 범하면 자기비판에 참가하여야 한다. 여기서 자기비판에 참가하는 자는 상호비판을 할 수 없고 비판만 받아야 한다는 점이 주생활총화와 다르다. 초급당비서는 자기비판에 참가한 자에게 결함의 중요성에 따라 주의, 경고, 엄중경고, 출당 등 처벌을 주게 되는데, 이들은 간부사업(승진, 이동)에서 제외되며 외국출장이 금지된다.

인민군대내 당생활에 있어서 정치군관이 일반사병들 앞에서 자기비판하는 경우는 없다. 군단이나 사단급인 경우, 정치부가 별도의 세포와 초급당을 구성하기 때문에 정치군관들은 여기서 당생활총화를 하게 되며, 그 이하 부대인 경우에는 초급당위원회에서 자기비판을 한다. 이는 당사업을 관장하는 정치군관들이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외교부의 경우, 당조직은 중앙당 지도를 받는 한편 소속은 평양시 중구역 당위원회이다. 외교부의 당조직은 규모가 초급당에 지나지 않아서 군당급(또는 구역당) 이상만 갖추고 있는 당원등록과를 지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의 당조직은 외교부 소재지인 평양시 중구역 당위원회에 소속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급당 이상에는 중앙당에서 유급 전문 당일군을 파견한다는 김정일의 지침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중앙당 과장급이 초급당비서를 맡고 있다. 외교부내

초급당에는 비서, 부비서 2명(조직담당, 선전담당), 조직부 및 선전부 부원 4~5명이 상주해있다. 초급당 차원에서 비상설로 운영하는 초급당집행위원회에는 비서들, 외교부장, 제1부부장, 부부장 일부, 국장 일부, 사로청위원장, 직맹위원장 등이 소속되며, 초급당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 구성원 이외에 부부장 및 국장급 전원이 속하게 된다. 초급당 밑에는 국별로 세포를 구성하는 바, 세포비서는 전문 당간부가 아닌 해당 국의 부국장 또는 과장이 맡는다. (다만 일부 국은 당원이 200여 명에 이르러 세포보다 큰 부문당을 구성한다.)

외교부의 초급당위원회와 당비서의 주요 임무는 외교부 직원들의 당생활총화를 지도하고 통제하는데 있다. 당생활총화는 주, 월, 분기, 연간 등으로 구분되며, 주 및 월 당생활총화는 세포별로 열리며, 분기 생활총화 및 연간 결산총화는 초급당 차원에서 개최된다. 주 당생활총화는 월요일 첫시간에 실시되며 토론은 미리 준비되어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김일성 또는 김정일 교시 등을 인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과오나 개인적 실책을 비판한 후 사상적 원인을 분석하고 결의를 다지는 것이다. 주생활총화는 국 자체의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까닭에 호상비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분기마다 외교부의 초급당 차원에서 열리는 당생활총화는 매우 엄격하고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모든 외교부 직원이 참여하는데, 조직생활의 규범을 어긴 사건에 대해 초급당비서는 세포비서들을 통해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에 대한 토론을 미리 준비하고 검토시킨다. 특히 외부에서 적발되어 외교부 초급당에 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실랄한 비판이 이루어진다.

외교부내 각급 간부들은 이같은 당생활뿐만 아니라 당의 통보체계를 통해 감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포내의 특이한 사항들(과오나 좋은 일)이 매일 세포비서 → 초급당비서 → 중당당

조직지도부 통보과의 채널을 통해 최종 김정일에게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전문 당간부에 의한 조직적 통제(특히 행정·경제기관에 대해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는 회의적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이 의도한 만큼 당간부의 통제력과 침투력이 기층조직까지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는 간부들을 다중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조직운동으로서 3대혁명소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운동은 통제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우상화와 주체사상의 파급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김정일이 당조직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당간부에 의한 간부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조직적 통제의 또 다른 수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하기로 하자.)

둘째는 김정일 자신이 전문 당간부에 의한 조직적 통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인정한 것인 바, 이는 그가 정무원 산하 위원회 및 부의 당조직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인지 10년 후(1984년)에 이를 평가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그는 정무원의 간부들이 직급에 억눌려 급신거리거나 상급자에게 일신상의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행위를 비판하고, 이는 간부들 사이에서 조직관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종파주의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여기서 김정일이 조직관의 부족을 당 조직생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던 점⁷⁵⁾으로 미루어 보아 1980년대 중반까지도 조직적 통제가 의도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75) 김정일,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중앙기관 당일 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pp. 160~1.

나. '수령에의 충실성'

일찍부터 김일성은 간부의 징표로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내세워왔다. 김정일이 당권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이같은 간부의 징표들을 모두 포괄하고 집약하는 핵심 가치규범이 되었다는 점이다.⁷⁶⁾ 달리 말해, 이제 반드시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고 여기에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체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간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때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때로는 '혁명성'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는 바, 이는 김일성이 이미 혁명의 최고 수뇌로 우상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이 1974년에 선언한 김일성 사상의 '김일성주의화'와 그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바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한 간부의 최고 덕목이 되었다.

특히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은 초헌법적인 권위를 지니는 문헌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김일성 권위의 절대성, 무조건성과 함께 그의 무오류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원칙은 모든 간부와 당원들의 정치사상적 파오를 밝히고 캐내는 기준, 즉 체제유지의 기간요원들 사이에서 정치사상적 잣대 역할을 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은 소위 토론이라고 부르는 학습방식을 통해서 주입되었다. 북한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아래 간부들에게 매일 2시간 이상의 학습을 요구하고, 각종 집체학습과 수요강연을 체계화하게 되었다. 또한 간부들은 매년 1개월씩 간부양성

76) 김정일,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 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4.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96.

기관(중앙당학교, 마르크스·레닌주의학원, 인민경제대학, 국제관계대학 등)에서 학습하게 되었다. 물론 주된 학습내용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숙지하고 간부의 행동 및 언행 규범을 이에 맞게 규정하는 작업이었다.

이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사상사업에 관여하는 당간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의할 것은 김정일이 "사상사업에서는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상사업이 선전선동부 간부들의 임무로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당의 최고부서인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의 모든 간부들이 김일성 우상화란 작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만 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또는 우상화)이 간부의 최고 가치규범이 된 것과 함께 소위 인민적 사업작풍이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인민적 사업작풍이란 간부들이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인민을 대하지 말고 인민 속에 들어가 배우고 가르치라는 혁명적 균중노선의 기본 사업방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미 1950년대 말 천리마운동으로부터 1960년대 초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및 대안의 사업체계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는 바, 1970년대 및 1980년대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치적 동원 기능으로부터 카리스마 구축 기능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북한이 사회주의로의 이행 직후에는 혁명적 균중노선을 통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경쟁적 동원을 촉구하면서 간부제도와 각종 근로단체 조직이 인민 속에 침투하였다. 이제는 인민적 사업작풍 아래 김일성과 인민 사이의 일체화된 관계를 부각시키고 김일성의 카리스마를 조작하려는 것이다.

최고지도자가 카리스마를 구축하기 위해 인민대중과의 일체화된 관

계를 강조하는 사례는 비민주적 정치현장 또는 종교에서 흔히 발생한다.⁷⁷⁾ 최고지도자와 인민대중 사이의 일체화된 관계란 전자가 후자에게 친밀성을 보이면서 자신의 초능력을 과시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와 간부제도가 논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는 점이다. 베버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관료기구를 통한 권위의 정당화는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는 반면, 카리스마에 의한 지배는 비합리성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에 대한 카리스마의 조작과 간부제도의 활성화 사이에 이같은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의 처방은 간부를 철저히 김일성과 인민대중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당조직의 틀 속에 한정시켰던 것이다. 이같은 노력은 위에서 언급한 당생활의 강화와 함께 관료주의의 틀을 깨고 인민 속에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라는 인민적 사업작풍의 구호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김정일은 “간부는 틀을 차리기 위한 간부가 아닙니다. 우리 간부들은 수령님께 충성 다하는 수령님의 혁명전사이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는 인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궁극에 가서는 간부라는 말 자체를 없애자는 것입니다”⁷⁸⁾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간부란 결국 수령과 인민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며, 수령에 대한 카리스마 조작과 우상화 작업이 완결되면 당간부 및 간부정책의 존재 필요성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다.

김일성과 인민대중 사이의 일체화된 관계를 부각시키고 대신 당과 당간부의 역할을 도구적으로 간주하려는 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 김정일이 제시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인민대중 중심

77) Charles Lindholm, *Charisma* (Oxford: Blackwell, 1990), pp. 175~89.

78) 김정일,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9.

의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계는 특히 김정일이 당에 대한 관점을 정리한 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는바, 당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연결시키는 군중노선을 주관하고 인전대(transmission belt) 역할을 행하는 당의 주변조직, 즉 근로단체들을 지도한다는 것이다. 김정일은 당이 수령과 인민대중의 연결 메카니즘인 만큼, 당을 그 자체의 집합적인 행동보다도 조직으로서 더 중요한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여겼다. 이 점이 레닌의 당에 대한 관점과 판이하게 다르다. 레닌에 의하면, 직업적인 혁명이 집단인 당은 최고의 계급조직으로서 사회주의이론의 행동지침에 따라 목적의식을 갖고 행동한다. 반면에 수령에 대한 우상화가 절정에 달한 북한에서는 당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조직으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다음의 김정일 발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조직들의 결합체입니다. 당에 대한 관점과 입장은 수령에 대한 관점과 립장, 당조직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다같이 포괄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혁명관의 구성에 대하여 말할 때 수령관과 당관이라고 하지 않고 수령관과 조직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관은 당조직뿐만 아니라 당의 령도 밑에 수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모든 사회정치적 조직들에 대한 관점과 립장을 포괄합니다.... 조직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수령과 혈연적으로 련결될 수 없으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지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령과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서는 수령이 안겨주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 수 없습니다.”⁷⁹⁾

7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10.1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02.

이같이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만 강조되고 당이 도구적 메카니즘으로만 이해됨에 따라, 당간부들은 점차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당의 지시와 지침의 침투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은 김일성고급당학교의 교과목으로 당일군이라는 과목을 추가하고 '군당책임비서'란 영화를 시청토록 하여 주인공이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전형적 당간부의 모습을 본받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2. 체제위기와 간부의 위상 변화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는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 함께 표면화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체제위기는 특히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새로운 체제 건설과 개혁·개방정책의 지속을 위해 북한을 실리적으로 대하게 되면서 가속화되었다. (예를 들어, 양국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안보관련 자원인 원유를 수출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우호가격을 파괴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위기는 김일성·김정일을 비롯한 최고 권력 엘리트층의 위기의식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이 1991년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통해 북한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구호는 소련과 동구에서의 대변혁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의 표현인 동시에 이로부터 탈출하여 체제의 존속을 피하려는 자구노력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역설의 혼재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김정일은 1991년 12월 인민군최고사령관의 직책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가 군권 장악의 상징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70년대 이후 당권(구체적으

로는 조직지도부)을 통해 인민군내 당조직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지만, 이제는 최고사령관 직책을 통해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위관계가 형성되었다.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김정일은 이같은 권위관계를 활용하여 군대를 체제의 보루로 삼는 과도적 권위구조를 운용해올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체제위기가 표면화된 시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간부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김정일의 간부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대응이며, 다른 하나는 군간부의 부상(특히 정치군관의 역할)에 따른 당·군관계의 제도적 변화를 추적해 보는 것이다.

가. 간부에 대한 이중적 인식

사회주의 대변혁이라 불리우는 동구의 체제변혁과 소련의 해체는 김일성·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권력엘리트로 하여금 심대한 위기의식을 갖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은 면밀하게 사회주의체제의 와해 요인을 분석하고 대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가 지적한 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⁸⁰⁾ 첫째는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들은 사상교양을 통한 사회통합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주의의 본질을 사회적 소유관계, 즉 경제에서만 찾았을 뿐 사상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들 체제는 특히 경제적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취한 개혁·개방이 자본주의의 기본 특성인 다원주의 요소를 불러들였다

80) 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1992.1.3),"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진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p. 428~37.

는 것이다. 셋째는 동구와 구소련 사이의 관계가 자주성에 기반한 국제적 연대보다는 상·하관계 혹은 중앙·주변 관계를 통한 의존적 연대에 의해 한 국가에서의 변화가 타 국가에 전파되는 파급효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넷째는 중앙집중식 관리방식이 관료주의 또는 세도화라는 병리현상을 낳았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이같은 체제 와해의 요인에 대한 분석 외에도 소위 '내부의 적'에 의한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를 설명하였다. 말하자면 체제 와해의 과정에서 직접 행위자가 필요한데, 이는 혁명의 배신자 또는 변절자라고 부르는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내부의 적이란 크게 두 가지를 지칭하는데, 하나는 간부층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인이다.

흥미로운 것은 내부의 적이라고 부르는 간부층과 지식인은 서구의 학자들이 실제로 사회주의 대변혁 과정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회세력이라는 점이다. 특히 간부층은 비합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가의 공적 영역을 침해(흔히 부정·부패라고 일컬어짐)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함으로써 체제변혁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⁸¹⁾

북한의 경우, 간부들 특히 당간부들의 체제에 대한 저항감은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이 체제의 수혜계층으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물질적 및 도덕적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도달하면서부터 간부들이 관료제적 병리현상보다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일탈 행위인 부정·부패에 개입하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 정, 군 분야의 간부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부정·부패에 간

81) Giuseppe Di Palma, "Legitimation from Top to Civil Society: Politico-Cultural Change in Ea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부의 부정·부패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양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이유는 1984년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과 합영법 채택 이후 소비재의 불균등한 분배와 외화의 유입으로 암시장이 형성되었고 생산분야와 유통부문 간부들의 비공식적 활동공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 양상도 매우 다양해져 뇌물공여와 같은 단순한 형태를 넘어서서 주택사용권의 암거래, 골동품과 귀금속의 밀매, 무역일꾼들의 외화횡령, 불법적 개인기업의 운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⁸²⁾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간부들과 일반주민들 간의 유리현상을 다소 완화시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⁸³⁾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간부들의 부정·부패는 간부조직을 통한 국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간부들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 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부패를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간부층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구호에 대해 쉽게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북한 당국은 간부들의 일탈행위를 반(反)사회주의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예를 들어, 큰 성과는 없었지만 1991년 10월부터 2년간 중앙위원회가 공포한 “각 기관, 기업소, 군, 가정에서 비사회주의를 뿌리 뽑을데 대하여”라는 정령에 의해 “비사회주의 그루뭇”을 구성하여 대대적인 반부패 캠페인을 펼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일탈현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일방적으로 체제의 수호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82)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제4장.

83) Leslie Hol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p. 204.

권력엘리트의 입장에서는 체제의 수혜자가 반드시 체제의 보루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기 힘들게 되었다. 김정일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듯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관료주의와 함께 착취사회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상사업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간부들의 일탈행위는 사상교양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으며, 또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 또는 대안적 사회주의의 모색으로 비화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이에 대해서 김정일은 간부들이 혁명가 혹은 배신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이미 사망한 김일성과 자신의 노선에 충실하지 않은 이들을 ‘패배주의자’라고 매도해 오고 있다.⁸⁴⁾ 또한 김정일과 북한 당국은 김일성 사후 붉은기 철학을 논하면서 ‘배신자는 갈테면 가라’는 구호를 통해 간부들의 행동공간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나. 당·군 권위관계의 변화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은 줄곧 인민군최고사령관이란 직책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지휘권을 통해 과도적 권위구조를 운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그가 1997년 10월 총비서직에 추대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목할 것은 김정일의 군사적 지휘권에 대한 의존이 필연적으로 당과 군부 사이의 관계 변화를 고무할 수밖에 없다는 점

84)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김정일이 황장엽(黃長燁)을 비롯한 일부의 핵심간부들이 비공식적으로 개혁·개방을 논의한 것을 마치 반동적 이론을 제기한 것으로 비판하고 이들을 배신자로 처부한데서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혁명적 신념과 광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2.17, 3.5).”

이다. 그 징후는 1997년 2월 16일 김정일의 55회 생일을 기념하는 「로동신문」 사설에 “인민군대가 없으면, 우리의 인민도, 우리의 국가도, 우리의 당도 있을 수 없다”라는 표현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북한 정치체제는 적응과정에서의 변태(anomaly of adaptive process),⁸⁵⁾ 즉 체계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해서 변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위기에 직면한 체계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적응과정에서 개혁·개방과 같은 효율적인 대안을 제쳐놓고 기존에 익숙한 병영국가적 행태에 의존함으로써 비효율을 거듭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을 말한다.⁸⁶⁾

북한에서의 이같은 적응과정의 변태성은 타 사회주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꽤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당이 군을 지도한다는 레닌주의적 당·군관계 전통이 오랫동안 지켜져 왔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당내에서 최고위층 엘리트는 정치국과 군사위원회 등에서 군부의 인사문제, 군수산업, 군사전략 및 동원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집체적으로 결정한다. 공산당의 비서국, 간부부, 군사부에 속한 중간간부들은 이같은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과 실행지침을 정하고, 군대내 지휘 및 정치계통과 밀접한 제도적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결정을 이행한다. 한편, 군부내 당조직과 정치군관은 당의 방침과 실행지침의 이행을 감독함은 물론 병사들의 일상생활을 감독하고 정치적으로 교화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라는 규범아래 당과 군은 하나의 생명체계와 같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85) James G. March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pp. 61~4.

86) Sung Chull Kim, "Adaptiv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n Times of Regime Crisis,"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pp. 191~207.

레닌주의적 당·군관계 혹은 ‘당적 지도’라는 원칙은 현재의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즉, 조선노동당이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해 인민군을 지도하거나 통제하고 있다는 가정은 잘못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물론 인민군내 당조직이 엄연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들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대신에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도와 통제하에 있다. 우리는 북한에서 정치국과 비서국이 기능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들 기구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한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논거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당내 조직지도부, 간부부, 군사부 등이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해 인민군내 정치조직(당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인민군내 정치조직은 독자적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민군 전반의 정치사업을 관장하고 있지만, 조직으로서의 조선노동당의 결정이나 지침을 이행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군내 정치조직은 김정일의 명령과 지시를 이행하는 당조직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당·군관계는 위에서 언급한 레닌주의적 ‘당적 지도’의 전통은 물론 그 용어가 시사하는 내용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당적 지도’란 인민군내의 권위관계를 말하는 용어이며, 그것이 조선노동당과 인민군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현재 북한의 군부는 당으로부터의 독자성이 매우 증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군부가 당으로부터 독자성을 지니게 된 것은 김정일이 당과 군을 분리지배(divide and rule)하려는 의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당내에서 확대해 나가던 시기에는 주로 조직지도부를 통해 인민군 총정치국과 각 단위부대의 정치조직에 대한 영향력을 넓혀나갔다.⁸⁷⁾ 그러나 김정일은 1991년 최고

87) 물론 김정일의 노력이 쉽사리 현실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77년

사령관에 임명된 후 자신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군대내에 전달됨을 알고, 당은 당대로 그리고 군대는 군대대로 분리 지배 함으로써 경쟁자의 등장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아무튼 군부가 당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군간부에 비해 당간부들의 역할과 권위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증하는 것으로 김정일이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한 후 당간부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당은 군대의 정치사업 방식을 배우도록 중용한 부분이 있다. 또한 김정일은 “조직지도부 부과장 출신의 김일성 종합대학 책임비서가 인민군 군단정치위원보다 못하다”고 말하면서 유사한 직급의 간부들 사이에서도 군대내 당간부가 우월함을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인민군내에서도 사회에서 당사업을 하다가 들어온 일군들보다도 본래부터 군대에서 정치사업을 하던 일군들이 일을 낫게 한다”고 말함으로써 당간부들의 능력을 비하하였다.⁸⁸⁾ 특히 순수한 정치군관보다 당간부 출신 정치군관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은 과거 김일성이 간혹 당간부를 정치군관으로 발탁했던 전통과 대치되는 발언으로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처럼 당간부와 군대내 정치군관을 차별화하는 김정일의 인식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 당간부 중에서 정치군관을 발탁하는 사례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조직과 당간부들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김정일의 주장아래 이제는 군사문화가 더욱 강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지지자였던 인민군 총정치국장 이용무가 월권과 비리사건으로 철직되고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총정치국장을 겸임하면서 군대내 정치조직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 그가 당 군사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군에 대한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1991년 최고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군에 대한 그의 권위 행사는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 스즈키 마사유키 저,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p. 130; 김현식·손광주, 「金正日」 (서울: 천지미디어, 1997), pp. 191~5.

88) 「월간조선」, 1997년 4월호의 “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pp. 307~17 참조.

62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다. 특히 총포탄, 고난의 행군, 7연대정신 등의 구호는 당간부들의 규범과 가치가 김정일 등장 이래 강조되어온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의 엄격성으로부터 통속적이고 전투적인 것으로 변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간부정책의 특성: 지속 및 변화

북한의 간부정책은 대체로 일관된 충원방식과 조직체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오면서도 김정일 등장(1970년대 초)을 전후하여 변화된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당조직사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여 강력한 당적 통제 메카니즘을 구축함으로써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 전반기까지 약 10년 동안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당지배 체제를 확립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는 김정일 등장 이후의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권위구조와 가치규범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권위구조 측면

가. 전문 당간부의 역할 강화

북한에서 당이 사회 모든 영역을 지도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행정·경제기관과 공장 및 기업소 등 생산현장의 당조직은 기본적인 행정 또는 생산업무에 대한 지도보다도 통제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적 지도'란 크게 당정책 지도와 당생활 지도를 의미하는데, 후자를 통한 당원 및 간부에 대한 조직통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전에는 1개월에 1번 정도 세포중심의 총화에 그쳤던 조직통제가 김정일 등장 이후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와 각종 학습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 당원 및 간부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간부는 행정 또는 생산에 대한 지도보다도 조직 강화와 통제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정열을 할애해야만 되었다. 이같은 당간부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당조직사업에 적극 개입한 직후에 행한 연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당내부사업을 소홀히하면 당일군의 본분을 다할 수 없으며 경제사업도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급 당위원회 책임 일군들은 6대4, 더 좋기는 5대5의 비율로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어 조직사상사업을 틀어쥐고 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⁸⁹⁾

여기서 당내부사업이란 조직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김일성의 정책과 노선의 침투기제를 강화하고 그를 우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같은 발상이 당간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경제현장에서의 지도에서 조직적 통제로 비중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당간부의 역할 변화와 함께 당조직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모든 행정·경제기관과 생산현장에서는 세포 이상의 당조직에 전문 당간부제도가 정착되었다. 초급당까지 1명의 비서와 2명의 부비서(조직비서, 선전비서)들이 임명되어 순전히 당사업만 주관하는 전문 당간부제가 공고화되었다.

전문 당간부제의 공고화가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과 통제력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간부는 특히 생산단위(공장, 협동농장, 기

89) 김정일,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 당조직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p. 214.

업소)에서 당의 경제정책 집행정형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생산과정과 공정에 직접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당적 지도와 행정간에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당간부는 무의식적으로 월권행위를 일삼음으로써 경제의 비효율성을 한층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한 셈이 되었다. 이같은 문제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간부들의 의도적인 규범일탈행위인 부정·부패의 심화를 초래하였다.

나. 간부에 대한 다중적 통제: 3대혁명소조의 예

김정일이 당의 조직사업에 본격 개입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3대혁명소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운동의 목적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그의 이상화 작업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동원이었다. 이것은 또한 노화한 당간부들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경험주의, 무사안일주의를 경계하면서 그들의 당정책 집행과정을 감독하고 근무태도를 감찰하는 다중적 통제의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생산현장의 당간부들은 당생활이나 당위원회같은 당 내적인 통제는 물론이고 외부적 통제에 의해 행동공간이 위축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맥락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은 관료제적 병리현상에 대한 외부적 치유책(external remedial)⁹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대혁명소조운동은 중국의 문화혁명기간 중에 취해졌던 당조직의 혁파(shake-up)⁹¹⁾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즉, 북한의 3대혁명소

90) Harry Harding, *Organizing China: The Problems of Bureaucracy, 1949~197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1), p. 16.

91) 이에 대해서는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17.

조운동은 당조직 자체를 과격한 방법으로 타파하려는 혁명운동이라기 보다는 간부들의 관료제적 폐해를 점진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통제 메카니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점은 김일성의 다음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의 간부들이 이와 같이 지난 시기 많은 일을 하였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해방 후 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며 그들의 수준도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오랜 간부들을 다 사업에서 제외시키거나 떼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아껴야 합니다. 일부 오랜 간부들 속에서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분위주의, 관료주의가 나타나고 심한 경우에는 한자리하였으니 이제는 물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안일해이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랜 간부들을 떼어버릴 것이 아니라 잘 도와주어 그들이 지난 기간 일을 잘한 것처럼 앞으로도 일을 잘하여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당일군들과 국가, 경제기관 일군들, 근로단체일군들 그리고 과학기술일군들과 청년 인테리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들을 무어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였습니다.”⁹²⁾

3대혁명소조운동이 한창 전개되던 시기,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소조책임자들의 권위가 당간부의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³⁾ 그들의 역할과 권위는 협동농장이나 공장과

92) 김일성,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3.3),”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05.

93) 현성일과의 면담, 1997.10.15;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

같은 생산현장에서 특히 높았던 바, 김정일이 당정책의 침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생산현장의 간부들보다 3대혁명소조의 의견을 먼저 청취하도록 배려한데서 알 수 있다. 공장소조책임자의 경우, 때로는 그의 권위가 공장당비서보다 우위여서 비리와 월권을 행하는 사례가 흔히 있었다고 한다. 또한 농업부문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우수한 소조원을 리당비서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방침을 김정일이 하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3대혁명소조운동이 기존 당조직의 혁파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었던 만큼 기본적으로 당과 당간부의 역할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운동은 해당 단위의 당조직을 지원하고 당정책의 절대성을 고수하려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따라서 소조원의 임무는 당의 노선과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를 검토하고 집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았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조는 당의 '친위대' 또는 '돌격대'라는 별칭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이유로 생산현장의 당간부들이 다중적 통제의 틀 속에 메이게 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3대혁명소조운동에 의한 통제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관영매체들이 1996년 이후 3대혁명소조운동의 활동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북한 당국이 3대혁명소조를 조용히 해체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같은 징후는 외형적으로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의 일탈행위가 증대되어⁹⁴⁾ 부정·부패가 범람한데서 엿볼 수 있다. 즉, 간부들은 보다

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p. 451.

94)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p. 313.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규범일탈을 자행하게 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소위 ‘비사회주의그루빠’를 통해 단속을 시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공개처형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다. 정치군관의 위상 및 활동영역 증대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간부의 일탈행위가 증가하게 되고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 변혁이 발생하자, 김일성은 후계구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991년 12월 김정일에게 인민군최고사령관의 직책을 넘겨주었다. 이는 김정일이 군대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 김정일이 당의 제도적 메카니즘을 통하지 않고도 군대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김정일의 군대에 대한 권한행사는 매우 점진적이지만 중요한 의미의 제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미 제IV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민군(좁은 의미로는 인민군내 정치조직)이 점차 노동당으로부터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고 두 조직 사이의 권위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 제도적 변화는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변화 과정 속에서 김정일 시기의 간부정책은 김일성의 그것과 차별성을 띠 수밖엔 없었다. 정치군관의 활동영역이 인민군대내에서 뿐만 아니라 군대 밖 사회로까지 확대된 점이 그것이다. 이 차별성은 당간부와 정치군관 사이의 인사교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과거 김일성은 고위 당간부를 정치군관으로 발탁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72년 함경북도 도당책임비서 이동춘을 제2군단 정치위원으로 임명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정확한 연도 미상) 황해남도 도

당책임비서를 지낸 이봉원(李奉遠)을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임명하였다. 이 밖에도 군당책임비서들이 해당지역의 인민군내 정치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다. 김일성의 이런 인사방식은 노동당의 군대에 대한 지도, 특히 군대내 정치조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반면 김정일은 정치군관들의 전횡을 견제하면서도⁹⁵⁾ 그들을 군대내에서 광범위하게 등용하였다. 그는 정치군관들을 보위사업 또는 간부사업 관련 분야로 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민무력부 간부국의 부장, 군단 간부부장, 사단 간부부장 등의 직책에 정치군관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예를 들면, 김정일이 인민군최고사령관에 취임하여 군권을 장악한 이후인 1992년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인 원우희를 보위사령관으로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단보위부장 80% 정도를 정치군관 출신으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⁹⁶⁾

김일성 사망 후 군대가 체제 존속의 보루라고 인식한 김정일은 정치군관에 대해 더욱 높은 신임을 주게 되었는데, 중앙당 간부들이 정

95) 1987년 인민군 총참모장 오극렬이 군대내 정치군관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정치조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김정일은 이를 묵인한 바 있다. 오극렬은 인민무력부장 오진우가 교통사고로 1년간 병독에 입원치료차 체류하고 있던 시기에 “인민군대내의 전투준비완성에서 정치부장의 역할”이라는 논문에서 군대내 정치군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대다수 고위 군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군관과 지휘군관의 신분층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극렬의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이봉원은 오진우가 귀국하자 이같은 사실을 그에게 모두 보고하였으며, 오진우는 다시 김일성에게 “오극렬이 군대를 당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한다”고 보고하여 대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오극렬을 좌천시키도록 지시를 내려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군관의 세도를 견제하기 위한 김정일의 오극렬에 대한 묵시적 지지 속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의 권위가 군대내 완전히 침투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가 오극렬과의 개인적 친분에 의존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곧 김정일이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를 포기하거나 정치군관의 불필요성을 상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96) 최주활과의 면담, 1997.11.5.

치군관들의 충성도와 능력을 본받도록 하라는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일성 시대처럼 당간부가 정치군관에 임명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치규범 측면

가. 선발기준의 유지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형성된 이래 사회적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온 요소는 매우 생득적이고 귀속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토대'(또는 성분)이다. 북한에서 말하는 토대는 직계가족 및 친인척의 체제 건설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런 의미에서 북한은 사회적 신분의 수직이동이 제한된 계급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협소한 범위의 '토대'에 바탕해 핵심 권력엘리트를 구성하게 된 까닭에 이를 뒷받침할 중간간부도 그들의 직계 및 친인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북한은 네포티즘에 바탕한 간부정책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가 되었다.

당원충원과 간부선발의 기준에 있어서 이같은 생득적 요소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북한에서는 타 사회주의체제에서 발생했던 소위 홍·전(red-expert)의 노선대립 또는 대체는 존재하지 않았다.⁹⁷⁾ 또한 생득적 요소의 중요성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환경변화에

97) 많은 사회주의 연구자들은 사회주의체제의 각 조직이 비대해지고 복합성을 더해 감에 따라, 이념 중심의 간부보다 전문성을 갖춘 간부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을 한 대표적인 학자와 저작으로는 William A. Welsh,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s," in Carl Beck, et al.,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Co., 1973); John A. Kringen, "An Exploration of the 'Red-Expert' Issue in China through Content Analysis," *Asian Survey*, Vol 15, No. 8 (August 1975).

대한 테크노크라트 중심의 자생적 체제적응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낳고 있다. 왜냐하면, 소위 '토대'가 좋은 사람은 체제의 수혜자로서 충성을 표시해왔으며, 이들의 자제들마저도 체제의 '핵심계층'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간혹 간부 선발에 있어서 출신성분뿐만 아니라 개인의 충실성을 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는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부인사에는 반드시 추천인이 필요한데 성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후환을 두려워하여 추천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부의 표징으로서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오랫동안 강조되었고 또한 김정일 등장 이후에는 수령에의 충실성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득적 요소가 간부의 선발 기준이 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같은 간부의 표징은 간부가 지녀야 할 지극히 일반적 덕성으로 강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위의 간부의 표징에 의해 간부가 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김정일이 등장하면서 생득적 요소가 간부선발의 기본 요소로 지켜 지면서도 다소 전문성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학 졸업자가 이전보다도 간부 선발의 기본요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경향은 타 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홍·전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핵심계층의 자제들 중에서도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간부의 기본조건을 갖춘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 출신성분과 대학교육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있다는 점이다. 중앙당의 간부부는 행정·경제기관의 간부들의 인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선발, 입학, 졸업 후 사회배치까지 관여하는 바,⁹⁸⁾ 이 과정에서 토대가 중요

98)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北韓調査研究』, 1권 1호 (1997), p. 13.

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중요하다. 물론 출신성분이 다소 부족해도 개인의 능력이 탁월하여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진출에 있어서 이들조차도 많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나. 간부의 충성대상 변화

사회주의체제의 이념적 특성 중 하나는 언제나 충성과 적대의 대상을 상정하고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감히 어느 누구도 적대의 대열에 서지 않기 때문에 체제는 쉽사리 정치적 충성과 사회적 동원을 이끌어내게 된다. 이같은 점에서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전쟁기간 동안 북한은 간부사업에 있어서 충성의 대상으로 민족을 앞에 내세웠으며 계급을 그 다음으로 내세웠다. 간부 부족이 심각했던 당시 북한은 소위 '민족간부양성'이란 구호를 내세웠고 당원과 간부 충원에 있어서 노동자 외에도 수많은 지식인을 수용하였다. 물론 김일성 자신의 선호도는 노동자에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오랜 농경사회의 전통으로 노동자들이 하나의 계급을 형성하기에 취약한 상태이며 이들로만 지지세력을 구축하기에 미약함을 간파하였다. 따라서 그는 민주주의통일전선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경쟁자인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였고, 입당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는 원칙을 허가이식 '관문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전쟁기간에는 당원과 간부들의 소실을 메우기 위해 계급적 원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정치적 승리와 숙청과정을 통해서 김일성의 권위가 공고화되자 북한에서는 혁명과 계급노선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것은 1960년대에 '혁명화, 노동계급화'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김일성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지만,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향상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는 생산현장의 당위원회에 당간부는 물론 핵심 노동자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에서 입증된다.

한편,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간부의 충성대상은 민족이나 계급처럼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수령인 김일성으로 구체화되었다. 김정일은 1974년 김일성의 사상을 ‘김일성주의’로 명명하고 초헌법적 내용을 담은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을 공표하여, 김일성을 우상화함은 물론 최고의 충성대상으로 묘사하였다. 김정일의 등장과 함께 간부의 징표라고 불리우는 당성, 계급성, 인민성은 모두 김일성이라는 자연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요약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김일성이 충성대상으로 여겨지면서부터 당의 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내려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레닌에 의하면, 직업적인 혁명이 집단인 당은 최고의 노동계급 조직으로서 사회주의이론의 행동지침에 따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행동한다. 반면 김정일에 의하면, 당은 간부, 당원, 일반주민이 조직생활을 통해서 수령에게 접근하도록 도와주는 메카니즘이다. 이 점에서 오늘날 북한에서는 당에 대한 관점을 당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직관’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⁹⁹⁾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상징적인 이미지로 남게 되고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충성 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 핵심 권력엘리트의 구성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김일성 사망 후 노동당 국제비서 황장엽의 망명, 농업비서 서관희와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이봉원의 숙청 및 처형(설)으로 드러나

99)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10.1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202.

고 있다. 물론 이들을 따르던 중간 간부들의 운명도 이들과 같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정책이란 간부들의 목적의식적 행위의 집합과 그들이 간직해야할 지고의 가치규범과 관련한 정책이라고 정의할 때, 간부의 충성대상의 변화는 간부교체를 수반하는 등 간부정책의 전반적 변화와 병행한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사회주의체제에서 간부정책은 권력 엘리트의 정책과 노선을 당간부들을 통해 기층 사회조직까지 침투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한 통제를 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북한의 간부정책은 이같은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당적 지도’라는 원칙을 고수함과 동시에 개인의 ‘토대’를 바탕으로 한 선발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체제 형성기의 정책적 원형을 대체로 지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많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부자간 권력승계가 이루어진 세습체제라는 점에서 변화의 요인은 상당부분 권력승계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해방 후 북한은 심각한 간부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평양학원을 비롯한 각종 양성기관을 설립하였고 간부후보로서의 당원을 충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지 못한데다가 사회주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던 까닭에, 1946년 8월 신민당과의 합당을 통해 ‘대중적 정당’ 건설이라는 이름아래 당세확장과 간부후보군의 확대를 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간부인사에서는 계급적 원칙(노동계급의 우선성)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간부의 낮은 자질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전쟁은 일반상식과는 다른 결과들을 가져왔다. 즉, 전쟁이 어떤 단결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견고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당내 갈등을 표면화시켜 숙청의 선풍을 일으켰으며, 김일성으로 하여금 군사지휘권 대신에 오히려 당권을 중심으로 집권을 공고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김일성은 한편으로 박헌영의 남노당과 허가이의 소련파를 수세에 몰면서 자신의 당내 권력을 확대해 갔으며, 다른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인민군내 당조직과 정치위원제를 정착시켜 나갔다.

이같은 변화는 전후 간부정책의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김일성은 당권을 주도하게 되자(완전한 장악은 1956년 '8월중파사건' 이후임) 행정·경제기관 내에 당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집체적 결정기구의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소위 '당적 지도'를 통한 침투력과 통제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는 또한 군대 내에서 외형상 '유일관리제'란 구호를 내세워 지휘관중심 체계를 요구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군관을 중심으로 한 당위원회를 제도화함으로써 군대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를 제고시켰다.

간부정책이 생산현장과 같은 기층조직에서 공고화된 것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서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방법을 통해 생산현장의 당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당간부의 권한과 책임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의 당위원회와 당간부의 권한 강화는 당권한의 침투라는 측면에서 기여했을지라도 경제체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당위원회가 생산 영역은 물론 정치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는 집체적 결정기구가 됨에 따라, 당간부들은 경제와 정치 모두에 대해 발언권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한 마디로 형식상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 사이의 권위관계가 통제(또는 갈등) 차원에서 융합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간부들의 가치규범으로 유난히 강조된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합리성과 창의성 대신에 감성과 피동성을 고무했을 뿐이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의 후계자 지명과 동시에 간부정책에 전환이 일어났다. 당사업 만을 관장하는 전문 당간부에 의한 당적 지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전문 당간부들에 의해 당조직생활 지도가 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간부들과 당원들은 2일 및 주 당생활총화와 각종 집체적 학습 및 강연에 참여함으로써 당조직의 엄격한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3대혁명소조, 국가안전보위부 등에 의해 다중적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더욱이 김정일에 의해 제시된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에 의해, 간부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가치규범으로 삼아야 했다. 이같은 김정일의 노력에 힘입어 1970년대 후반기와 1980년대 전반기의 약 10년 동안에서는 북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당 중심의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체제 전반적인 모순이 누적되고 경제적인 침체가 심화되면서 간부들은 관료주의, 무사안일주의와 같은 관료제적 병리현상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같은 일탈행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더욱이 사회주의 대변혁과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 체제가 위기에 도달함에 따라 당·군간의 권위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당·군간의 권위관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991년 12월 김정일의 인민군최고사령관 취임일 것이다.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를 통해 군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직접 명령과 지시를 행사하는 권위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것은 김정일로서는 당과 군을 분리지배하려는 의도였지만, 군부의 당으로부터의 독자성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같은 권위관계의 변화와 함께 간부의 가치규범도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원칙과 같은 엄격성을 띤 것으로부터 '총폭탄,' '7연대정신,' '혁명가'(또는 '배신자') 등과 같은 통속적인 것으로 변모하였다.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변천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간부정책 또한 변화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간의 독특한 권력승계 방식 때문에, 간부정책의 효율적 변용(예를 들어, 개혁·개방을 위해 당간부와 행정·경제간부의 역할 분담)에 의

한 적응보다는 군부와 정치군관의 역할 증대를 통한 변태적 적응을 시도하였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군부가 당으로부터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권위관계 하에서 체제변혁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정도의 독립적 역할을 행할 것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공열. 「북한관료제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3.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철·정영태·오승렬·이헌경·이기동.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김학준. 「북한50년사」.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김형식·손광주. 「金正日」. 서울: 천지미디어, 1997.
- 박완신. 「신북한행정론」. 서울: 지구문화사, 1995.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북한 사회주의건설의 정치경제학」. 서울: 연구사, 1994.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스칼라피노·이정식. 한홍구 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서울: 돌베개, 1986.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3.
- 共産圏問題研究所. 「北韓總覽, 45~68年」. 서울: 共産圏問題研究所, 1968.
- 金聖哲.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 金台鎔.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方仁厚. 「北韓 朝鮮勞動黨의 形成과 發展」. 서울: 高麗大 亞細亞問題 研究所, 1967.
- 裴垣達. 「北韓權力鬭爭論」. 서울: 學文社, 1990.
- 北韓研究所 編. 「北韓總覽」. 서울: 北韓研究所, 1983.
- 徐載鎭·姜元植·柳浩烈·金聖哲·吳承烈·全相仁 共著. 「社會主義體制 改革· 開放 事例 比較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 鄭永泰. 「金正日 體制下의 軍部 役割」.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5.
- 趙在權 著. 申福龍 譯. 「共產主義 幹部制度 研究: 中國과 北韓의 분석 적 비판」. 서울: 평민사, 1985.
- Beetham, David. *Bureaucracy*.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87.
- Harding, Harry. *Organizing China: The Problems of Bureaucracy, 1949~1976*.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1.
- Holme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 Kamenka, Eugene. *Bureaucracy*. Oxford: Basil Blackwell, 1989.
- Lee, Hong Yung.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Lindholm, Charles. *Charisma*. Oxford: Blackwell, 1990.

2. 논문

- 김일성.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2.12.15).” 「김일성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의 중심과제 (조선인민군 군단, 사단 정치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51.3.6).”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공업 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 1975.3.3).”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강서군 당사업지도에서 얻은 교훈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60.2.23).” 「김일성저작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8.11.20).”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남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연합회의에서 한 결론 (1949.6.30).”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농촌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5.2.2).”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당 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당위원장들과 인민위원당들 앞에서 한 연설, 1958.3.7).”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당내 정세와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4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6.2.15).”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합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11.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합들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1.11.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당단체를 튼튼히 꾸리며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할데 대하여 (도, 시, 군 당일군들과 당조직원들 앞에서 한 연설, 1957.7.5).”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당대렬을 확대강화하며 당단체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황해도 봉산군위원회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46.1.13).”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당사업 방법에 대하여 (생산기업소 당조직원 및 당위원장들, 도, 시, 군 위원장들의 강습회에서 한 연설, 1959.2.26).” 「김일성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66.10.18).” 「김일성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당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지도원 이상 일군들과 한 담화, 1956.12.17).”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5.4.1).” 「김일성저작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여 우리 당 간부정책을 옹계 관철할데 대하여 (도당 조직부장, 간부부장들 앞에서 한 연설, 1968.5.27).”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 _____. “당의 공고화를 위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결론, 1945.12.18).”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1.11.2).”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한 보고, 1948.2.2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당중앙위원회사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함경남도 제2차대표회에서 한 보고, 1948.2.21).”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량강도 당조직들 앞에서 나서는 과업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3.8.16).” 「김일성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로동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한 결론, 1946.8.29).”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민족간부는 새조선 건설의 기둥이다 (중앙고급지도간부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7.1).”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제 (보안간부훈련소 제2소군관회의에서 한 연설, 1947.1.15).”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북조선공산당 각급 당단체들의 사업에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한 보고, 1945.12.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칠 대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우리 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로동당 평안남도 순천군당대표회의에서 한 연설, 1948.1.24).” 「김일성저작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테리들 앞에서 한 연설, 1968.6.14).”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2.7.7).” 「김일성저작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인민군대내 당정치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3.8).”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10.21).” 「김일성 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인민군대내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 당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51.3.18).”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제2차 전당대회에서 진술한 사업 결산보고와 결론 (1948.3.28).” 「김일성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_____ .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4.3.21).” 「김일성저작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전원회에서 한 결론 (1950.12.23).”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조선인민군 324군부대 관할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2.8).” 「김일성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 _____ . “중앙당학교는 당간부를 키워내는 공산대학이다 (중앙당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 1946.6.3).”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 “중앙보안간부학교의 임무 (중앙보안간부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한 담화, 1947.4.25).”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 “참다운 인민의 군대, 현대적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 (평양학원 제3기 졸업식축하연회에서 한 연설, 1947.10.5).” 「김일성저작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평안남도 당단체들 앞에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북조선 평안남도 제1차 대표회에서 한 연설, 1945.12.2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평양학원을 창립할데 대하여 (평양학원 터전을 정하면서 학원 및 지방당 일군들과 한 담화, 1945.11.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안간부훈련소 제1소 1분소 군인들과 한 담화, 1946.10.7).”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현정세와 당면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보고, 1950.12.21).” 「김일성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3.
- 김정일. “농촌경리부문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선전동부 부부장회의에서 한 연설, 1976.2.6).”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전국 당조직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1974.8.2).”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담화, 1992.1.3).”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전국 당선전일군 강습회에서 한 결론,

- 1974.2.1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중앙당 및 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74.4.14).”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정무원 위원회, 부 당조직들의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정무원 위원회, 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4.6.10).”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당 중앙위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10.10).”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중앙기관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중앙기관 당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4.7.15).”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8.
- _____. “혁명적 신념과 양심은 혁명가와 배신자를 가르는 기본징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2.17, 3.5).”
- 스즈키 마사유키 저. 유영구 역. 「金正日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유영구. “북한의 정치·군사관계의 변천과 군내의 정치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표논문 (북한 군사문제의 해부: 역사적 변천과 김정일체제하의 북한군, 1997.2.2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직속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교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현성일. “북한사회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체계.” 「北韓調査研究」, 1권 1호 (1997).
- 梁興模. “共產軍의 政治組織制度.” 北韓研究所 編, 「北韓軍事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8.
- 尹宗鉉. “金日成의 軍事思想.” 北韓研究所 編. 「北韓軍事論」. 서울: 北韓研究所, 1978.
- Fitzpatrick, Sheila. *The Cultural Front: Power and Culture in Revolutionary Rus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Johnson, Chal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Kim, Sung Chull. “Adaptive Process of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n Times of Regime Crisis.”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
- Kringen, John A. “An Exploration of the ‘Red-Expert’ Issue in China through Content Analysis.” *Asian Survey*. Vol 15, No. 8 (August 1975).
- March, James G. and Johan P. Olsen.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1989.
- Meyer, Alfred G. “The Comparative Study of Communist Political Systems.” in Richard Cornell. e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0.

- Odom, William. "A Dissenting View on the Group Approach to Soviet Politics." *World Politics*. Vol. 28, No. 4. (July 1976).
- _____. "Soviet Politics and After: Old and New Concepts." *World Politics*, Vol. 45, No. 1. (October 1992).
- Palma, Giuseppe Di. "Legitimation from Top to Civil Society: Politico-Cultural Change in Eastern Europe."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 Welsh, William A. "Comparative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s." in Carl Beck. et al.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Co., 1973.

3. 기 타

김정민과의 면담, 1997.9.18.

최주환과의 면담, 1997.11.5.

현성일과의 면담, 1997.10.15.

「월간조선」 1997년 4월호("1996년 12월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계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육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i>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 901-2613, 901-2604, FAX: 901-2547)

